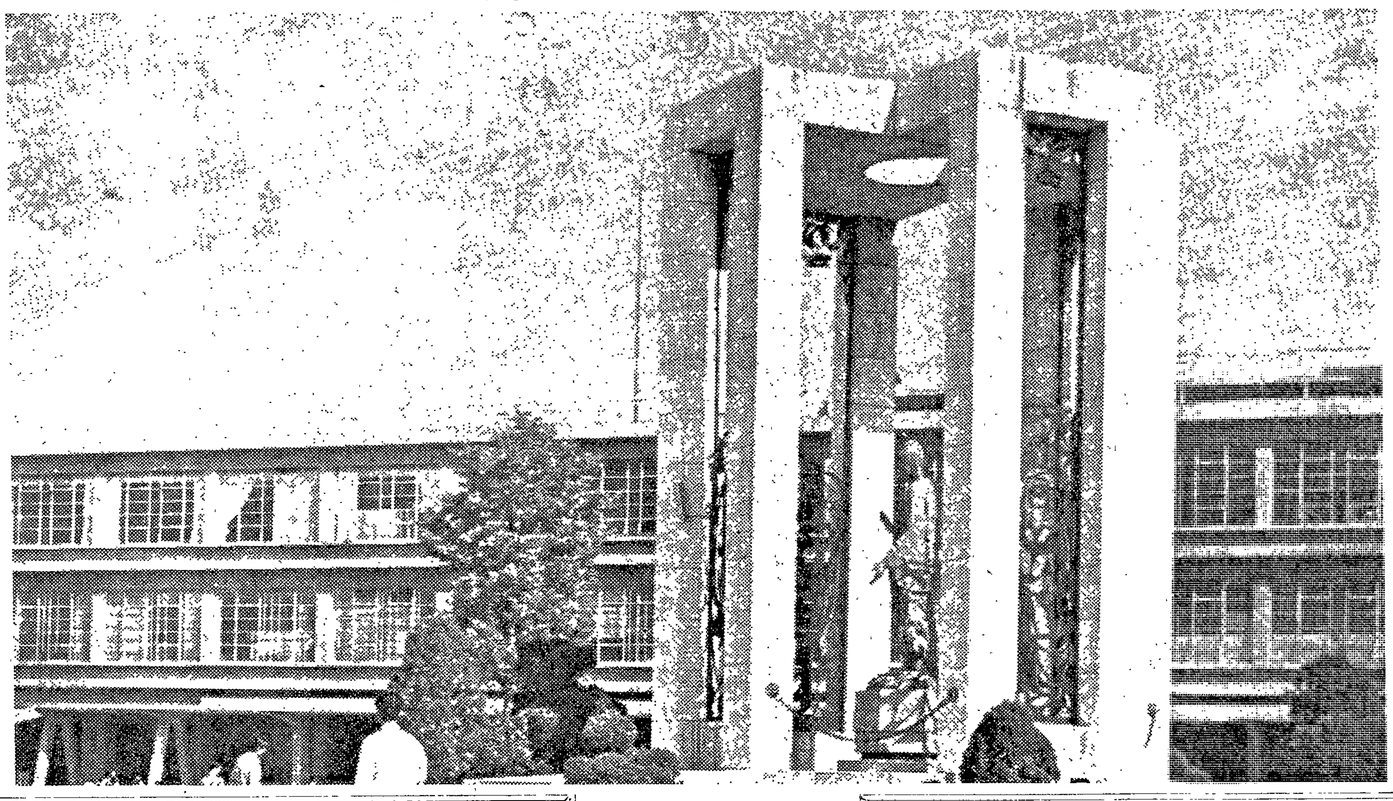
늠름한 氣象으로 來日을 산다



東大新聞

發行人 徐燉珏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編輯部長 尹太京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㉗8131~9
本社直通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謹賀新年

東大新聞社

새해에 소원

밤 깊은 을음소리를 내며
일년 내내 지난 겨울은
텅빈 허리춤을 어지럽게 들추어
虛慾을 채우고.
어디선가 시퍼렇게 뜨는 달,
발가락 사이로 박히는 얼음조각들의 이빨로
언 땅을 물고
남은 밭씀들의 귀를 잘랐네.

오래도록 하루의 낮익은 벼랑 앞에
숨은 자유를 뉘어놓고
바람이 차게 맺힌 줄기를 휘두를 때
우리는 들었네.
뒷들에 소리없이 내리던 忍冬꽃
붉은 이마의 흔들림을.
피 흐르는 낮은 소리를.

북에서 온 사내들이
붉은 입술로 웃고 있을 때
우리는 알았지.
오늘 저녁 지친 뼈마디로
洋酒盞을 거듭히 들어취는
우리의 비밀, 그 넓은 관용의
죽은 비밀을.
서럽게 앓는 당나귀 울음소리를.

밤 깊이 흘리며 가는
일년 내내 지난 겨울의 발굽 속에서
수없이 잠긴 눈물,
얼음조각들의 이빨을 캐어내네.
끝간데 없는 길이 일어서서
어디선가 시퍼렇게 뜨는 달의 눈을 찔려
달 하나가 기울고,
언 땅에서 튀어나온 나무뿌리마다
밭씀들의 잘린 귀가 새순으로 돋아나느니.
오려나, 그대.
벽장 안에서 들끓던 여름의
녹녹한 곰팡이들도 기어나와
서슬 푸른 털을 씻어야 할 때.
이 땅에 늘어붙은
곰팡이들아, 진짜 곰팡이들아, 소리치며
살을 녹여 떠오르는 그대의 햇귀어리.
마른 손으로 찢어드는 풀잎마저
문득 문득 살아오르게 할 것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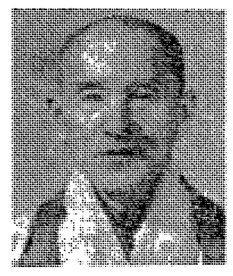
李明柱 〈國文科·詩人〉

理事長 朴碧眼

親愛하는 東國人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東國學院의 발전과 모든 東國人의 所願이 이루어지기를 佛前에 祈願합니다.
人間은 누구나 送舊迎新할 때마다 지난해의 잘못을 反省하고 새로운 希望과 決意로 새해, 새아침을 맞이 합니다. 회고하면 國內外的으로 多事多難했던 73년이였읍니다마는 우리 東國學院은 慶賀하게 校勢伸張을 記錄했읍니다. 먼저 지난 해의 가장 큰 成果라고 하면 大學의 長·短期綜合發展計劃에 따라 서울로 온 敎育學館建物이 完工되어 새해부터는 새로운 敎育道場으로 使用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年來의 宿願이던 體育館이 着工되어 現在 工事가 進行되고 있어 長步의 發展的인 바탕이 이룩되고있읍니다. 이와같은 建設을 施設擴張에만 있지 않고 內的인 學風造成에 있어서도 注目할만한 發展을 記錄하였다고 믿읍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學生들의 學究분위기 刷新과 資質向上으로 優秀한 人材를 各界로 輩出하게된 것은 커다란 기쁨의 하나입니다. 안과 밖으로 이러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東國人 모두가 보다 誠實하게 自己責任을 다하려한 노력의 所産이며 보다 自覺的 創造的으로 自己義務에 充實하려했던 結果라고 確信합니다. 本人은 內外로 어려운 與件을 무릅쓰고 聲援과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東國人여러분에게 거듭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東國學院은 어떤 個人의 私財로 유지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長久한 民族史의 傳統속에서 民族의 敎化를 담당해 온 三寶의 淨財로 設立된 學校法人입니다. 우리 學院이 시설확장과 질적향상으로 그 품위와 學風을 높이고 深化하는 것은 民族의 傳統性을계승, 發展시키는 일이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東國人들에게 부하된 責任이 그 어느 大學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을 자명할것입니다.
親愛하는 東國人여러분!
오늘의 東國은 그 설립정신, 또는 역사성에 비추어 볼때, 가장宗立大學다운 교육과 연구, 그리고 運營의 合理化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佛敎的인 영역에 모든 교육과 연구내용이 集中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綜合大學으로서의 學問의 多樣性을 추구하면서도 학문하는 姿勢와 이념은 建學理念 아래서 同質化, 또는 統一性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學園의 特殊性을 자연스럽게 살려가고 內的으로 深化하는 것이 우리 학원의 內容을 확충하고 더욱 충실히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한사람을 位한 理想의 길에서 건설적인 신정시키는 것은 바로 남도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人間社會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人間社會답게 形成하는 힘은 和合을 바탕으로 합니다. 本人은 和合을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으뜸가는 발전과 평화의 要素라고 믿읍니다. 和合의 德目이 무너진 家庭과 사회, 또는 國家間에는 갈등과 분열, 투쟁의 悲劇이 계속되며 蹈步와 沈滯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利己와 貪慾등 인간사회의 不條理는 物量爲主의 가치관전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東國人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慈悲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和合團結로 敎育目標 具顯

自己更新으로 自己發展에



總長 徐燉珏

여러가지로 多事했고 여러 방면에서 多難했던 1973년도 이제 묵은 달력으로 넘어갔고 여러분앞에는 1974년의 새해가 펼쳐졌음니다. 우선 東國人 여러분들과 가정에 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때 1973년 東國史에 팔목할만한 비약적 發展은 없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周邊與件이 비약적 發展을 주저케한 까닭도 있었고, 또 短期의 무리한 비약보다는 長期의 眼目에서 속도는 다소 늦더라도 코끼리걸이 한발한발 地盤을 굳히고 문어가며 전진하려는 本人의 哲學도 介在되었음니다.
무리한 비약에는 언제나 또 다른 무리가 반드시 따른다는 이치를 쓰라리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빚어 내는 악순환은 가장 비능률적 침체만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코끼리 걸음을 하는 동안 에도 東國大學의 北門을 들어서면 누구나 한눈에 그위용을 쳐다볼 수있는 敎育學館건물이 완공 되었음을 본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원 신설과 실내체육관 착공과 정구장 신설및 73년도에 전례없이 취업율이 높았다는 사실은 동국인들을 위하여 흐뭇한 숙식이 아닐 수없읍니다.
또 지난해 佛敎大學과 日本불교계대학이 공동주최로 불교학술세미나를 설정의로 끝마쳤다는 學問的 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읍니다. 이 지구상의 온나라들이 이제 한갓 이웃마을처럼 다리고 있는 가시밭길이 아니기를 바랄뿐 입니다.
우선 上昇하는 物價高는 우리들의 日常生存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敎職員 여러분의 處遇改善을 적절히 시행해야한다는 當面課題가 새해의 첫 관문에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정된 적절한 處遇가 상승하는 物價高를 뒤따르지 못하리라는 憂慮가 앞서므로 本人은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耐之과 淸貧이라는 해묵은 格言의 의미를 再吟味할 決意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不振했던 교수연구비 지원도 연구분위기의 조성과 연구성과를 위하여 可能한 限 적극적인 방향으로 策定할까 합니다.
그리고 現實의 不條理등을 들어 學生들이 大學의 門을 박차고 나갔을 때 治厥한 現實을 무期放學 이란 遺憾된 사태를 빚었읍니다.
學生諸君을 언제나 久遠의 理想을 追求한다는 高邁한 자세를 잃지 않은채 冷靜한 知性으로 여러분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의 主人公이라는 信念과 自負를 가지고 오늘과 對應하는 智慧를 배워주기 바랍니다. 높은 理想을 머리에 이고 現實의 진 흙을 밟고 오늘을 사는 智慧를 말합니다. 내무나 現實에만 密着되어 不條理와 對決할때 자칫 잘못하면 不條理의 迷路에 빠지고 만다는 어리석음은, 일찍 멀리함이 좋다는 先輩의 忠告도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東國人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코끼리의 늠름한 氣象을 일깨닫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읍니다. 참새 무리같은 少人數가 무어라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介意치 않고 묵묵히 제 갈길만 걸어가는 또,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 와도 굴하지 않고 돌고 나갈줄 아는, 또 불나방같이 溫和하다가도 한번 憤怒하면 사자조차 두려워하는 코끼리의 기상을 갖이 간직하고 살아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새해 東國人 여러분의 늘 健勝을 빌겠읍니다.

新年辭

矜持와 自負로 오늘에 對應

外國大學과의 交流幅넓혀

진 오늘, 학문의 문호도 과감하게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국제적 學術交流를 통하여 상호 의견교환이 활발해지고, 비판과 검토가 민민할때 학문의 향상은 기대할수 있읍니다. 새해에는 美國 日本뿐만아니라 인도까지 교수 학생 연구자료 교환을위한 문화교류의 폭을 확장할계획입니다.
1974년 새해에 접어들며 국내의情勢의 움직임은 우리가 감길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견도 있으나 다만 고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가시밭길이 아니기를 바랄뿐 입니다.
우선 上昇하는 物價高는 우리들의 日常生存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敎職員 여러분의 處遇改善을 적절히 시행해야한다는 當面課題가 새해의 첫 관문에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정된 적절한 處遇가 상승하는 物價高를 뒤따르지 못하리라는 憂慮가 앞서므로 本人은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耐之과 淸貧이라는 해묵은 格言의 의미를 再吟味할 決意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不振했던 교수연구비 지원도 연구분위기의 조성과 연구성과를 위하여 可能한 限 적극적인 방향으로 策定할까 합니다.
그리고 現實의 不條理등을 들어 學生들이 大學의 門을 박차고 나갔을 때 治厥한 現實을 무期放學 이란 遺憾된 사태를 빚었읍니다.
學生諸君을 언제나 久遠의 理想을 追求한다는 高邁한 자세를 잃지 않은채 冷靜한 知性으로 여러분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의 主人公이라는 信念과 自負를 가지고 오늘과 對應하는 智慧를 배워주기 바랍니다. 높은 理想을 머리에 이고 現實의 진 흙을 밟고 오늘을 사는 智慧를 말합니다. 내무나 現實에만 密着되어 不條理와 對決할때 자칫 잘못하면 不條理의 迷路에 빠지고 만다는 어리석음은, 일찍 멀리함이 좋다는 先輩의 忠告도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東國人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코끼리의 늠름한 氣象을 일깨닫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읍니다. 참새 무리같은 少人數가 무어라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介意치 않고 묵묵히 제 갈길만 걸어가는 또,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 와도 굴하지 않고 돌고 나갈줄 아는, 또 불나방같이 溫和하다가도 한번 憤怒하면 사자조차 두려워하는 코끼리의 기상을 갖이 간직하고 살아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새해 東國人 여러분의 늘 健勝을 빌겠읍니다.

수리보 極樂行

극락에 가는 길은 無量壽經 阿彌陀經 觀無量壽經의 淨土三部經에 잘 기록되어있다. 無量壽經에는 아미타불의 前身인 法藏比丘가 세운 四十八願이 중심이 되어 第十八願의 十念한으로 往生을 할 수 있다는 극락에의 가는 길을 일러주었고 觀無量壽經에는 극락에 가는 길은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염불과 마음을 순일케하는 觀法으로 포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즉 극락의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마음이 일치되는 경지를 의미하는 환영을 받는것은 이 주관적 마음의 힘을 떠나서 객관적 존재만이 아니고 이 둘 다라 연관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피로움이 없는 극락이 객관적 존재로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저 같았다. 불교의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보는 모습을 보고 또 팔을 올려 합장하며 붙을 뱉뎌라는 頌命의 이야기, 나는 극락에의 가는 길은 오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이론보다 분별도 필요없이 오직 하나의 진정한 마음만이 극락에 가는 길이요 힘이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다.

極樂行

황송스런우서 집에서 오늘 할머니 극락영 보살의 마지막 운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읍니다.
이 극락의 실상과 주관적 마음이 일치되는 경지를 의미하는 환영을 받는것은 이 주관적 마음의 힘을 떠나서 객관적 존재만이 아니고 이 둘 다라 연관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락은 소위 서방정토로 本人은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耐之과 淸貧이라는 해묵은 格言의 의미를 再吟味할 決意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不振했던 교수연구비 지원도 연구분위기의 조성과 연구성과를 위하여 可能한 限 적극적인 방향으로 策定할까 합니다.
그리고 現實의 不條理등을 들어 學生들이 大學의 門을 박차고 나갔을 때 治厥한 現實을 무期放學 이란 遺憾된 사태를 빚었읍니다.
學生諸君을 언제나 久遠의 理想을 追求한다는 高邁한 자세를 잃지 않은채 冷靜한 知性으로 여러분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의 主人公이라는 信念과 自負를 가지고 오늘과 對應하는 智慧를 배워주기 바랍니다. 높은 理想을 머리에 이고 現實의 진 흙을 밟고 오늘을 사는 智慧를 말합니다. 내무나 現實에만 密着되어 不條理와 對決할때 자칫 잘못하면 不條理의 迷路에 빠지고 만다는 어리석음은, 일찍 멀리함이 좋다는 先輩의 忠告도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東國人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코끼리의 늠름한 氣象을 일깨닫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읍니다. 참새 무리같은 少人數가 무어라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介意치 않고 묵묵히 제 갈길만 걸어가는 또,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 와도 굴하지 않고 돌고 나갈줄 아는, 또 불나방같이 溫和하다가도 한번 憤怒하면 사자조차 두려워하는 코끼리의 기상을 갖이 간직하고 살아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새해 東國人 여러분의 늘 健勝을 빌겠읍니다.

一九七四學年度 東國大學校 男女學生募集

大學	學科	定員	試驗科目 必須科目	試驗科目 選擇科目
佛敎大學	佛敎學科	一〇		
	哲學科	一〇	國語(I) 英語 一般社會	國史 數學(I) 商業 家庭(女) 農業
	印度哲學科	一〇		
	美術學科	三〇		
	僧伽學科	三〇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三〇	國語(I) 英語 一般社會	國史 數學(I) 商業 家庭(女) 生物
	英語英文學科	二〇		
	史學科	二〇		
	演劇映畵學科	三〇		
	數學科	三〇		
	物理學科	三〇	國語(I) 英語 數學(I)	國史 化學(I) 商業 生物(I) 農業 家庭(女)
	化學科	三〇		
	統計學科	三〇		
法政大學	法學科	三〇	國語(I) 英語 數學(I)	一般社會 物理(I) 商業 生物
	政治 外交學科	三〇		
	行政學科	三〇		
	敎育學科	三〇		
經商大學	經濟學科	三五	國語(I) 英語 一般社會	國史 數學(I) 商業 家庭(女) 農業
	貿易學科	三五		
	經營學科	四〇		
	電子計算學科	四〇		
農林大學	農學科	二五	國語(I) 英語 一般社會	國史 數學(I) 商業 家庭(女) 農業
	林學科	二五		
	農業經濟學科	三〇		
	農業生物學科	三〇		
工科大學	電子工學科	二五	國語(I) 英語 一般社會	國史 物理(I) 商業 生物(I) 農業 家庭(女) 化學(I)
	電氣工學科	二五		
	土木工學科	三〇		
	建築工學科	三〇		
	化學工學科	三〇		
	高分子工學科	三〇		
	食品工學科	三〇		
	工業經營學科	三〇		
	工業敎育學科	三〇		
	國語敎育學科	四〇		
師範大學	國語敎育科	二五	國語(I) 英語 數學(I)	國史 物理(I) 化學(I) 生物(I) 家庭(女) 一般社會 商業 農業
	英語敎育科	三〇		
	社會敎育科	三〇		
	體育敎育科	三〇		
	家政敎育科	三〇		
	數學敎育科	三〇		
	科學敎育科	三〇		
	演劇映畵學科	二五	國語(I) 英語 數學(I)	國史 物理(I) 化學(I) 生物(I) 家庭(女) 一般社會 商業 農業
	美術學科	三〇		
	體育敎育學科	四〇		

寅技

一、銓衡期間 一九七四年二月十二日~十三日
二、願書交付 一九七四年一月十一日~二月九日까지
三、願書接受 一九七四年一月二十一~二月九日까지
四、예비고사 성적을 20% 반영함
五、共他 상세한것은 본교 교무과에문의

一九七四年一月 日

東國大學校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번지
㉗8131~9 ㉗8141~5

社說 新年을 맞이하여

一九七四年의 해가 밝는다。이제 지난해의 모든 일들을 東大史의 73學年度페이지속에 간직되어 버리고 새로운 設計에의한 새로운 記錄들이 하나 둘 담겨지기 시작할 것이다。

의례히 이때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희망과 設計에 가슴이 벅차게 마련이다。특히 우리東大는 지난 73學年度가 未來를 향한 값진 跳躍臺의 구축을 한 해이였기에 이제 74학년도를 맞는 우리의 희망과 所懷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74年이 이미 구축된 跳躍臺에서 힘차게 跳躍하는 해가되기를 기원한다。돌이켜 보면 東國中興의 旗幟를 드지 數三年이 지났다。그동안 우리는 크게 눈에띄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그리고 不斷히 中興을 위한 터전을 다져왔다。이제는 그러한 터전을 발판으로 跳躍을 할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최근에는 施設의 擴大와 改善을 둘수 있다。지난 9月 大學當局은 教育制度改革研究委員會를 發足시키고 75學年度부터 140學點制의 所謂 實驗大學制度를 轉換시킬 方針을 세웠다。따라서 74學年度는 바로實驗大學을 可能케 할 수 있는 準備를하는 해이다。마치 自我의 發見에는 영악한데 自我의 실현은 作心三日로 그치는 여우별이 너나없는 단점이다。여기에 水到渠成의 교훈이 도도하다。이글이글타는 太陽을 私가 없다。일자가있는 雨露요 일능통령의 天心은 아니다。요는 仁者無敵을 섬겨 修身齊家부터 힘쓰잔 말이다。

지난 73學年度는 師大學園의 完工과 體育館의 着工等 外部的 施設의 擴張에 눈부신바가 있었지만 今年度에는 內部的 施設의 擴大와 改善을 必至의 것인데 하물며 實驗大學을 施行함에 있어서랴。

1974年은 확실히 東大史에서 매우 重要한 해가 될것임에 틀림없다。以上 擧例한 것들이 잘 解決되고 뜻과 같이 되어 年末에가서 돌이켜볼 때에 정녕 74年은 힘차게 跳躍한 해였다고 回顧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다 함께 念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밝은 未來像의 提示가 없이는 보람도 없을뿐 아니라 「백·업」할 힘도 붙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長·短期發展計劃은 집을 짓는데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것이어서 제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해도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建物은 보장것 없이 우리가 아무리 中興을 부르짖고 非常한 努力을 傾注한다해도 그것이 어떤 中心된 計劃의 一環이 아니라면 均衡과 調和를 잃기가 쉽고 따라서 所期의 成果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常識이다。明年부터 實驗大學을 施行하든 않든간에 施設의 擴張과 改善은 必至의 것인데 하물며 實驗大學을 實施함에 있어서랴。

1974年은 확실히 東大史에서 매우 重要한 해가 될것임에 틀림없다。以上 擧例한 것들이 잘 解決되고 뜻과 같이 되어 年末에가서 돌이켜볼 때에 정녕 74年은 힘차게 跳躍한 해였다고 回顧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다 함께 念願하는 바이다。

植民史觀 清算時念

韓國史의 國史教育의 새방향

李龍範 <博物館長·史學科>

○……지난 60年代의 韓國學界의 발전은 기념할 最高度로 확대되면서 韓國史의 재편을 구체적으로 反映해 왔으며 學界의 노력을 反映해 왔으며 그 때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단이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과거 日本人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宿命論的 植民地史觀의 적용을 탈피하기 위해 저술된 「……」(이기백……) 등은 國史學界의 큰 遺産이다。73年의民族主體史의 定立을 통한 韓國史再編·작업이 활발한운데 74年을 맞이하여 「主體的 國史敎育의새방향」이란 題의 李龍範敎授의論文으로 올바른 國史觀을들어본다。

(一)

韓國胎生의 植民史觀은 日帝의 旗田敎授는 한국에서 일본이 저질렀던 罪惡에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속이었다고 明言한바있다。또 일본인이 韓國에서 식민지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韓國史의 체계가 깨어질때까지 植民地史觀은 계속 존속될 것이다。

우리주변의 모든것에서 우리가 일본산업의 예속에서 벗어날때까지 植民地史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사학계에서 論議되는 「停滯性」과 「경제사학에서 論議되는 停滯性理論」은 그리고 이른바 「日鮮同祖論」의 적용이 정이 植民地史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한 한국사학의 발전은 없다。

國難과 資源危機

I、近代의 終焉

戰後 世界經濟가 누려온 高度成長은 이제 需要의 面보다는 供給·生産의 側面에서 挫折을 면치못하게 되지 않을까 憂慮되고 있다。그理由란 ①需要는 열마든지 있고 이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②그러나 資源의 涸渴에의한 原資材의 入手難과 公害反對運動의 激化에부딪쳐 以上의 生産을 增大시킬수 없다。③그結果 大企業도 製品의 價格을 이와같이 生産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局面을 糊塗할수있지만은 그렇게하지 못하는 中小企業도 原料價格의 暴騰、入手難으로 점차 生産이 어려워지고 倒産으로 말려들어 가게되고 이것이 급기야는大企業에게까지 波及되어간다。世界經濟의 破局은 이렇게하여 시작되고 現在와같은 高度成長에의 暴走는 好況狀態를 고갈 危險이 있다。그뿐아니라 이같은 徵候는 到處에 나타나고 있다。許性소다의 電解는 水銀汚染때문에 減産、부득이 低能率의 方式에의 轉換이 不可避하게되고 電力은 燃料難으로、光化學스모그反對에의한 發電所의 立地難으로 不足傾向을 더미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基礎産業의 停滯는 需要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生産을하고 싶어도 資源不足과 公害로 生産을 持續할수 없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形態로 到來하는 破局을 우리는 어떻게 表現할가。破局을 希臘語의 Katastrophe에 由來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흥미있는것은 希臘語에 破局을 나타내는 말에 또하나 anastrophe가 있다。

anastrophe의 意味는 kata 대신 휘로플 의미하는 ana라는 接頭語를 두면 暴走로에 제동이 걸린다는 發展所의 立地難으로 不足傾向을 의미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基礎産業의 停滯는 需要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生産을하고 싶어도 資源不足과 公害로 生産을 持續할수 없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形態로 到來하는 破局을 우리는 어떻게 表現할가。破局을 希臘語의 Katastrophe에 由來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흥미있는것은 希臘語에 破局을 나타내는 말에 또하나 anastrophe가 있다。

anastrophe의 意味는 kata 대신 휘로플 의미하는 ana라는 接頭語를 두면 暴走로에 제동이 걸린다는 發展所의 立地難으로 不足傾向을 의미 나타내고 있다。

아무튼 anastrophe와 같은 破局은 이미 進行中에있다。이것이 어느 時期에 어떤模樣으로 爆發하게 될것인가 많이 豫測되고있을 뿐인것이다。

現代는 古代로마帝國의 붕괴、中世 크리스트敎的 世界의 解體와도 같은 近代라는 이時代의 終焉이 各部門에서 진행중에있다。世界經濟의 破局은 이 근대의 終焉의 하나의 一가장 決定的인一 局面의 表現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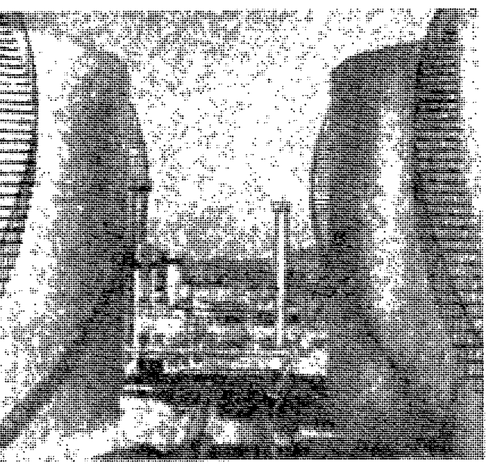
II、資源波動의 背景과展望

現下 世界經濟를 뿌리서부터 뒤흔들어놓고 있는 이른바 資源波動은 그 원인을 두가지의 構造的選擇과 偶然的인 需給으로 나눌수있을까。생각된다。

구조적원인으로서는 ①전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패턴」의 변화와 ②자원多消費型 산업과 기술체계의 구조화를 들수있고 직접적인 근인으로서는 ①자원 수출국 (대체로 저개발) 의 民族化의 진전과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②세계적인 호경기와 「인플레」 ③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흉작 ④국제통화불안의 이중적모순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원횡포⑤ 등을 들수있다。

이와같이 資源波動은 그 원인이 不均衡的인 需給、「패턴」이 교란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면 아무래도 資源의 상대적、절대적 涸渴문제는 세계경제의 構造的 변화와 資源多消費型 産業、기술체계、그業化의 가속적인 진행과 資源 輸出國의 계속 資源의 상대적 절대적 涸渴문제는 세계경제의 構造的 변화와 資源多消費型 産業、기술체계、그業化의 가속적인 진행과 資源 輸出國의 계속



◇사진은 울산 정유공장。

기초산업 停滯는 資源難과 공해때문

世界的 好況은 破局으로 進行中

로在로 偏在과 占寡 國進先은 동파資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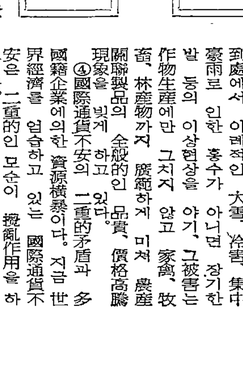
資源 多消費型 산업 回避하고 農水産業등 多樣한 開發時急

「인플레」 심리의 정착화등을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 諸原因을 다시整理하면 ①世界經濟의 構造的 「패턴」의 變化 ②戰後의 各國에대한 一貫된 成長政策은 大量失業을 解決하는데 성공함으로써 一方에는 賃金、所得의 增大→需要增大→生産增大→資源需要의增大라는 一聯의 連鎖關係에서 資源의 大量消費時代를 出現케하였으나 한편 資源에 관한 限、食糧을 비롯한 農産資源과 森林資源을 自然的、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고 製造工業의 重要原料인 石油·石炭·天然가스의 에너지 資源이나 그밖에 主要 鑛産資源을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고 國際大資本에 의하여 寡占되어 있어 처음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圓滑을 기대할수 없는 構造的條件을 지니고 있다。

②資源多消費型 産業과 技術體系이다。오늘날 主要工業國의 産業構造는 加工部門偏型에다가 그技術體系가 저資源多消費型으로 굳혀져 있다。예컨대 鋼鐵의 경우 過去의 平爐製鋼法이 51年「오스트랄리아」에서 發明된 酸素吹上轉爐 (LD轉爐) 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原料使用面에서 一大變革을 가져왔다。LD는 廢鐵을 주원료로 하기때문에 平爐보다 회수율이 높고 또 投資額도 적으나 대신 鐵鋼石 石炭등의 저하원 使用量이 많다。이밖에 非鐵金屬의 生産技術도 60年代를 통하여 크게 變化 종래 한정된 소량의 國內鑛石의 製鍊法이 最近에는 海外 원광석의 大量導入을 前提로한 反射爐나 自熔爐등에의한 精鍊法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와같은 素材生産體系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른 一方에는 資源多消費型 技術體系一곧 投入資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강행 消費財生産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一例로 라디오·TV生産에 있어 「트랜지스터」配線技術은 종래 TV 한台당 8個9~11程9을 필요로했던 技術을 109으로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했으나 前者는 폐기처분하고 後者는 회수 곤란으로 폐기처분하고있다。



〈經商大敎授〉

張 一 源 宗

이와같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資源多消費系統이 支配的인 構造的原因이 되고있다。

①자원수출국의 공업화의 진전과 자원민족주의이다。主要資源도 東南亞 中近東、아프리카、中南美등 저개발국에 집중적으로 賦存되어있다。그런데 이들 자원보유국의 농업、수산、광물 자원의 1차가공의 발전、특히 부가가치가 큰 광물자원을 원료로하는 수출지향적공업화는 광물자원의 세계적인 수급상태에 커다란 變調를 가져왔는데 다시 이들 국가에의한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이다。세계적인 파동을 야기시키고있다。50년「반동」회의에서 62년 천연자원에대한 항구적주권확립、그후「리마선언」에서 자원이용에관한 국가주권의 행사등과 같은 일련의 대책수립에 이어 최근에는 중동전쟁을 계기로한 석유무기의 감산、나아가서 무기화정책을 자원수출국의 경제를 근저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一聯의 원인에 더욱 拍車를 가한것은 ②72年下半期以來의 世界的인 前例없는 好況과 「인플레」의 進行을 資源問題를 또한 크게 자극했다。

③異常氣候에 의한 農作物의 흉작이다。사실 작년의 異常氣候는 世界到處에서 이례적인 大旱、冷害、集中豪雨로 인한 흉수가 아니면 장기한발 등의 이상현상을 야기、그被害는 作物生産에만 그치지 않고 家禽、牧畜、林産物까지 廣範하게 미쳐 農産品價格폭등을 빚게하고 또한 이것이 다시 農産加工品의 品貴、價格高騰현象을 가져왔다。

④國際通貨不安의 資源價格引上 多國籍企業에의한 資源獨占 등이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一方에 「인플레」進展度가 높은 나라는 國際收支赤字로 弱勢通貨를 더욱 不安케하여 物價高의 「인플레」를 재촉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一方에 「인플레」進展度가 낮은 나라는 貿易·資本收支의 兩面에서 累積黑字로 强勢通貨의 强勢度를 더욱 높여 强勢通貨의 買入投機를 誘發、이것이 國內過剩流動性을 招來하여 「인플레」의 昂進을 피할 수 없게 하고있다。

이와같이 强·弱勢通貨國을 막론한 「인플레」의 同時進行은 세계적인 換物·買占競爭을 誘發시키고 있는데 특히 현재 多國籍企業管理下에있는 2천8백60億달러에 達하는 달러 유동자금 (Ruff nadar) 의 UN難問會에서의 多國籍企業에 의한 資源獨占 (壟斷) 이 世界의 資源波動의 커다란 原因이 되고 있다는 事實이 資源波動의 심리적 확보라는 점을 감안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資源에대한 우리의對應

世界的인 資源파동에 직면하여 정부는 원자재비축、수입선 다변화、그리고 국내대책으로는 물가안정법의 發動에 의한 최고가격제와 물가인상의 사전승인제를 실시、이밖에 매점매석과 가수요의 억제가 거론되고 장기대책으로는 개발수입、원자재생산국과의 합작투자、경기종금계약등이 제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단·장기대책을 一朝一夕에 한두가지 고안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다。첫째로 자원파동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南北對話의 主導나、정치체제의 재편성에 의한 政治定向의 設定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南北對話의 中斷、世界的인 에너지의 공포、UN에서의 韓國問題處理、그리고 발전의 表徵으로 性格지워지던 對內體制的인 기능이 韓國政治의 영역을 벗어나는 국제적인 場에서 형성되어 流派해 온 현상등은 곧 통제불가능한 요인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있다。

사실에 있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發展과 成長의 初段階에서는 人爲的인 노력이 가져오는 사회적 격차문제는 피할수 없는 構造上의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격차를 메꾸기 위한 政策이 성공의 계기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강요된 自律」이라는 표현으로 풀이해야할 것이다。무표결에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인플레」심리의 정착화등을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 諸原因을 다시整理하면 ①世界經濟의 構造的 「패턴」의 變化 ②戰後의 各國에대한 一貫된 成長政策은 大量失業을 解決하는데 성공함으로써 一方에는 賃金、所得의 增大→需要增大→生産增大→資源需要의增大라는 一聯의 連鎖關係에서 資源의 大量消費時代를 出現케하였으나 한편 資源에 관한 限、食糧을 비롯한 農産資源과 森林資源을 自然的·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고 製造工業의 重要原料인 石油·石炭·天然가스의 에너지 資源이나 그밖에 主要 鑛産資源을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고 國際大資本에 의하여 寡占되어 있어 처음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圓滑을 기대할수 없는 構造的條件을 지니고 있다。

②資源多消費型 産業과 技術體系이다。오늘날 主要工業國의 産業構造는 加工部門偏型에다가 그技術體系가 저資源多消費型으로 굳혀져 있다。예컨대 鋼鐵의 경우 過去의 平爐製鋼法이 51年「오스트랄리아」에서 發明된 酸素吹上轉爐 (LD轉爐) 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原料使用面에서 一大變革을 가져왔다。LD는 廢鐵을 주원료로 하기때문에 平爐보다 회수율이 높고 또 投資額도 적으나 대신 鐵鋼石 石炭등의 저하원 使用量이 많다。이밖에 非鐵金屬의 生産技術도 60年代를 통하여 크게 變化 종래 한정된 소량의 國內鑛石의 製鍊法이 最近에는 海外 원광석의 大量導入을 前提로한 反射爐나 自熔爐등에의한 精鍊法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와같은 素材生産體系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른 一方에는 資源多消費型 技術體系一곧 投入資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강행 消費財生産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一例로 라디오·TV生産에 있어 「트랜지스터」配線技術은 종래 TV 한台당 8個9~11程9을 필요로했던 技術을 109으로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했으나 前者는 폐기처분하고 後者는 회수 곤란으로 폐기처분하고있다。

이와같이 資本에 의하여 寡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원문제의 해결이 좀처럼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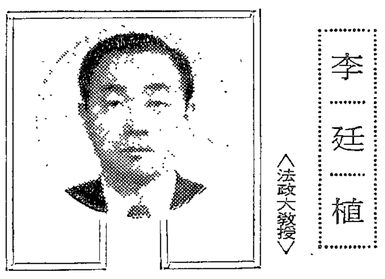
특히 製造工業의 大宗을 이루고있는 輸出産業의 에너지 依存率은 1973년에는 7.5배로 暴騰한데다가 도입조건마저 現金決濟로 바뀌어 (導入趨勢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에 소요될 外貨부담은 우리의 모든 수출액을 비롯한 農産資源의 持續的인 확보라는 점을 감안해서는 안될 것이다。

例로 72년도에 糧穀을 비롯한 農産物의 도입실적이 6억1천5백만달러에 달하였는데 73년에 들어서는 糧穀의 국제시세가 2배내지 3배로 暴騰한데다가 도입조건마저 現金決濟로 바뀌어 만약 현재와같은 趨勢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에 소요될 外貨부담은 우리의 모든 수출액을 비롯한 農産資源의 持續的인 확보라는 점을 감안해서는 안될 것이다。

例로 72년도에 糧穀을 비롯한 農産物의 도입실적이 6억1천5백만달러에 달하였는데 73년에 들어서는 糧穀의 국제시세가 2배내지 3배로 暴騰한데다가 도입조건마저 現金決濟로 바뀌어 만약 현재와같은 趨勢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에 소요될 外貨부담은 우리의 모든 수출액을 비롯한 農産資源의 持續的인 확보라는 점을 감안해서는 안될 것이다。

例로 72년도에 糧穀을 비롯한 農産物의 도입실적이 6억1천5백만달러에 달하였는데 73년에 들어서는 糧穀의 국제시세가 2배내지 3배로 暴騰한데다가 도입조건마저 現金決濟로 바뀌어 만약 현재와같은 趨勢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에 소요될 外貨부담은 우리의 모

재해國內政治전망



〈法政大敎授〉

李 廷 植

政治전망은 不可能 領域에 介入 自制

統制不可能한 要因 다분 기존 요청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한나라의 정치기능에는 통제가능한 요인 또는 영역과, 통제불가능한 요인 즉 어느 요인이 주어진 상황과 시간속에서 보다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나라의 정치는 성격지워지게 된다。

그런한 일반적인 견해 또는 논리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남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비교해보면, 이 73년은 통제가능한 요인을 작용시키려고 애썼던 상황과 시간의 그 신·구를 쉽게 판단할수있다。

그러나 그러한 努力은 급선회를 하여 統制不可能한 요인이 급작스러운 作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74년을 전망하는데 있어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統制가능한 요인의 작용이라는것은 가변적인 社會構造的인 간격이라는 발전의 表徵을 人爲的으로 메꾸어가려는 국가적인努力보다 구체적으로는 南北對話의 主導나, 정치체제의 재편성에 의한 政治定向의 設定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南北對話의 中斷、世界的인 에너지의 공포、UN에서의 韓國問題處理、그리고 발전의 表徵으로 性格지워지던 對內體制的인 기능이 韓國政治의 영역을 벗어나는 국제적인 場에서 형성되어 流派해 온 현상등은 곧 통제불가능한 요인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있다。

사실에 있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發展과 成長의 初段階에서는 人爲的인 노력이 가져오는 사회적 격차문제는 피할수 없는 構造上의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격차를 메꾸기 위한 政策이 성공의 계기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강요된 自律」이라는 표현으로 풀이해야할 것이다。무표결에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인플레」심리의 정착화등을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 諸原因을 다시整理하면 ①世界經濟의 構造的 「패턴」의 變化 ②戰後의 各國에대한 一貫된 成長政策은 大量失業을 解決하는데 성공함으로써 一方에는 賃金、所得의 增大→需要增大→生産增大→資源需要의增大라는 一聯의 連鎖關係에서 資源의 大量消費時代를 出現케하였으나 한편 資源에 관한 限、食糧을 비롯한 農産資源과 森林資源을 自然的·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고 製造工業의 重要原料인 石油·石炭·天然가스의 에너지 資源이나 그밖에 主要 鑛産資源을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고 國際大資本에 의하여 寡占되어 있어 처음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圓滑을 기대할수 없는 構造的條件을 지니고 있다。

②資源多消費型 産業과 技術體系이다。오늘날 主要工業國의 産業構造는 加工部門偏型에다가 그技術體系가 저資源多消費型으로 굳혀져 있다。예컨대 鋼鐵의 경우 過去의 平爐製鋼法이 51年「오스트랄리아」에서 發明된 酸素吹上轉爐 (LD轉爐) 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原料使用面에서 一大變革을 가져왔다。LD는 廢鐵을 주원료로 하기때문에 平爐보다 회수율이 높고 또 投資額도 적으나 대신 鐵鋼石 石炭등의 저하원 使用量이 많다。이밖에 非鐵金屬의 生産技術도 60年代를 통하여 크게 變化 종래 한정된 소량의 國內鑛石의 製鍊法이 最近에는 海外 원광석의 大量導入을 前提로한 反射爐나 自熔爐등에의한 精鍊法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와같은 素材生産體系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른 一方에는 資源多消費型 技術體系一곧 投入資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강행 消費財生産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一例로 라디오·TV生産에 있어 「트랜지스터」配線技術은 종래 TV 한台당 8個9~11程9을 필요로했던 技術을 109으로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했으나 前者는 폐기처분하고 後者는 회수 곤란으로 폐기처분하고있다。

이와같이 資本에 의하여 寡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원문제의 해결이 좀처럼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Ⅲ、資源에대한 우리의對應

世界的인 資源파동에 직면하여 정부는 원자재비축、수입선 다변화、그리고 국내대책으로는 물가안정법의 發動에 의한 최고가격제와 물가인상의 사전승인제를 실시、이밖에 매점매석과 가수요의 억제가 거론되고 장기대책으로는 개발수입、원자재생산국과의 합작투자、경기종금계약등이 제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단·장기대책을 一朝一夕에 한두가지 고안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다。첫째로 자원파동을 一時的인 現象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南北對話의 主導나、정치체제의 재편성에 의한 政治定向의 設定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南北對話의 中斷、世界的인 에너지의 공포、UN에서의 韓國問題處理、그리고 발전의 表徵으로 性格지워지던 對內體制的인 기능이 韓國政治의 영역을 벗어나는 국제적인 場에서 형성되어 流派해 온 현상등은 곧 통제불가능한 요인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있다。

사실에 있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發展과 成長의 初段階에서는 人爲的인 노력이 가져오는 사회적 격차문제는 피할수 없는 構造上의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격차를 메꾸기 위한 政策이 성공의 계기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강요된 自律」이라는 표현으로 풀이해야할 것이다。무표결에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인플레」심리의 정착화등을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 諸原因을 다시整理하면 ①世界經濟의 構造的 「패턴」의 變化 ②戰後의 各國에대한 一貫된 成長政策은 大量失業을 解決하는데 성공함으로써 一方에는 賃金、所得의 增大→需要增大→生産增大→資源需要의增大라는 一聯의 連鎖關係에서 資源의 大量消費時代를 出現케하였으나 한편 資源에 관한 限、食糧을 비롯한 農産資源과 森林資源을 自然的·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고 製造工業의 重要原料인 石油·石炭·天然가스의 에너지 資源이나 그밖에 主要 鑛産資源을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고 國際大資本에 의하여 寡占되어 있어 처음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圓滑을 기대할수 없는 構造的條件을 지니고 있다。

②資源多消費型 産業과 技術體系이다。오늘날 主要工業國의 産業構造는 加工部門偏型에다가 그技術體系가 저資源多消費型으로 굳혀져 있다。예컨대 鋼鐵의 경우 過去의 平爐製鋼法이 51年「오스트랄리아」에서 發明된 酸素吹上轉爐 (LD轉爐) 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原料使用面에서 一大變革을 가져왔다。LD는 廢鐵을 주원료로 하기때문에 平爐보다 회수율이 높고 또 投資額도 적으나 대신 鐵鋼石 石炭등의 저하원 使用量이 많다。이밖에 非鐵金屬의 生産技術도 60年代를 통하여 크게 變化 종래 한정된 소량의 國內鑛石의 製鍊法이 最近에는 海外 원광석의 大量導入을 前提로한 反射爐나 自熔爐등에의한 精鍊法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와같은 素材生産體系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른 一方에는 資源多消費型 技術體系一곧 投入資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강행 消費財生産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一例로 라디오·TV生産에 있어 「트랜지스터」配線技術은 종래 TV 한台당 8個9~11程9을 필요로했던 技術을 109으로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했으나 前者는 폐기처분하고 後者는 회수 곤란으로 폐기처분하고있다。

이와같이 資本에 의하여 寡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원문제의 해결이 좀처럼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Ⅲ、資源에대한 우리의對應

世界的인 資源파동에 직면하여 정부는 원자재비축、수입선 다변화、그리고 국내대책으로는 물가안정법의 發動에 의한 최고가격제와 물가인상의 사전승인제를 실시、이밖에 매점매석과 가수요의 억제가 거론되고 장기대책으로는 개발수입、원자재생산국과의 합작투자、경기종금계약등이 제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단·장기대책을 一朝一夕에 한두가지 고안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다。첫째로 자원파동을 一時的인 現象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南北對話의 主導나、정치체제의 재편성에 의한 政治定向의 設定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南北對話의 中斷、世界的인 에너지의 공포、UN에서의 韓國問題處理、그리고 발전의 表徵으로 性格지워지던 對內體制的인 기능이 韓國政治의 영역을 벗어나는 국제적인 場에서 형성되어 流派해 온 현상등은 곧 통제불가능한 요인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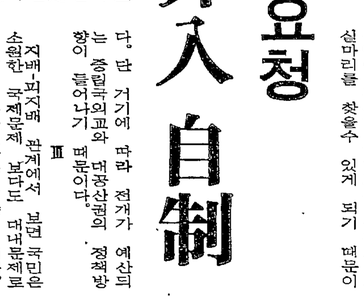
사실에 있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發展과 成長의 初段階에서는 人爲的인 노력이 가져오는 사회적 격차문제는 피할수 없는 構造上의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격차를 메꾸기 위한 政策이 성공의 계기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강요된 自律」이라는 표현으로 풀이해야할 것이다。무표결에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인플레」심리의 정착화등을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 諸原因을 다시整理하면 ①世界經濟의 構造的 「패턴」의 變化 ②戰後의 各國에대한 一貫된 成長政策은 大量失業을 解決하는데 성공함으로써 一方에는 賃金、所得의 增大→需要增大→生産增大→資源需要의增大라는 一聯의 連鎖關係에서 資源의 大量消費時代를 出現케하였으나 한편 資源에 관한 限、食糧을 비롯한 農産資源과 森林資源을 自然的·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고 製造工業의 重要原料인 石油·石炭·天然가스의 에너지 資源이나 그밖에 主要 鑛産資源을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고 國際大資本에 의하여 寡占되어 있어 처음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圓滑을 기대할수 없는 構造的條件을 지니고 있다。

②資源多消費型 産業과 技術體系이다。오늘날 主要工業國의 産業構造는 加工部門偏型에다가 그技術體系가 저資源多消費型으로 굳혀져 있다。예컨대 鋼鐵의 경우 過去의 平爐製鋼法이 51年「오스트랄리아」에서 發明된 酸素吹上轉爐 (LD轉爐) 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原料使用面에서 一大變革을 가져왔다。LD는 廢鐵을 주원료로 하기때문에 平爐보다 회수율이 높고 또 投資額도 적으나 대신 鐵鋼石 石炭등의 저하원 使用量이 많다。이밖에 非鐵金屬의 生産技術도 60年代를 통하여 크게 變化 종래 한정된 소량의 國內鑛石의 製鍊法이 最近에는 海外 원광석의 大量導入을 前提로한 反射爐나 自熔爐등에의한 精鍊法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와같은 素材生産體系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른 一方에는 資源多消費型 技術體系一곧 投入資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강행 消費財生産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一例로 라디오·TV生産에 있어 「트랜지스터」配線技術은 종래 TV 한台당 8個9~11程9을 필요로했던 技術을 109으로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했으나 前者는 폐기처분하고 後者는 회수 곤란으로 폐기처분하고있다。



中東戰爭 그 자체와, 그 전쟁이 불고온 石油의 武器化에 의한 國際政治의 版圖는 우리의 그러한 發展的인 정세에 대한 보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위협적인 與件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스스로가 經濟的으로 統治할 수 있는 姿勢를 갖추어야 한다는것이다。모든 나라가 共通的으로 資源制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뜻에있어서는 모든나라가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점일런지도 모른다。

둘째의 점은 28차의 UN에서 決定된 한국문제의 처리를 UN에서의 「강요된 自律」이라는 표현으로 풀이해야할 것이다。무표결에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인플레」심리의 정착화등을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 諸原因을 다시整理하면 ①世界經濟의 構造的 「패턴」의 變化 ②戰後의 各國에대한 一貫된 成長政策은 大量失業을 解決하는데 성공함으로써 一方에는 賃金、所得의 增大→需要增大→生産增大→資源需要의增大라는 一聯의 連鎖關係에서 資源의 大量消費時代를 出現케하였으나 한편 資源에 관한 限、食糧을 비롯한 農産資源과 森林資源을 自然的·技術的 條件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고 製造工業의 重要原料인 石油·石炭·天然가스의 에너지 資源이나 그밖에 主要 鑛産資源을 지역적으로 偏在되어 있고 國際大資本에 의하여 寡占되어 있어 처음부터 長期的인 需給의 圓滑을 기대할수 없는 構造的條件을 지니고 있다。

②資源多消費型 産業과 技術體系이다。오늘날 主要工業國의 産業構造는 加工部門偏型에다가 그技術體系가 저資源多消費型으로 굳혀져 있다。예컨대 鋼鐵의 경우 過去의 平爐製鋼法이 51年「오스트랄리아」에서 發明된 酸素吹上轉爐 (LD轉爐) 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原料使用面에서 一大變革을 가져왔다。LD는 廢鐵을 주원료로 하기때문에 平爐보다 회수율이 높고 또 投資額도 적으나 대신 鐵鋼石 石炭등의 저하원 使用量이 많다。이밖에 非鐵金屬의 生産技術도 60年代를 통하여 크게 變化 종래 한정된 소량의 國內鑛石의 製鍊法이 最近에는 海外 원광석의 大量導入을 前提로한 反射爐나 自熔爐등에의한 精鍊法으로 일반화 되어있다。

이와같은 素材生産體系의 대형화와 더불어 다른 一方에는 資源多消費型 技術體系一곧 投入資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강행 消費財生産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一例로 라디오·TV生産에 있어 「트랜지스터」配線技術은 종래 TV 한台당 8個9~11程9을 필요로했던 技術을 109으로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했으나 前者는 폐기처분하고 後者는 회수 곤란으로 폐기처분하고있다。

經濟生活의 特許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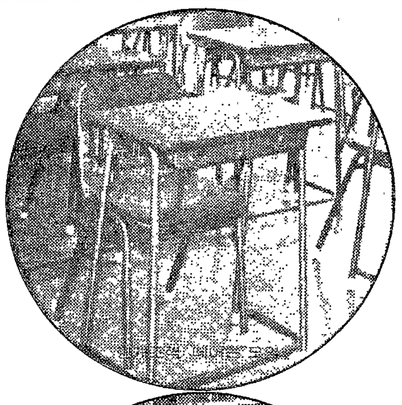
鐵製 學校學生講堂用 책상·의자 專門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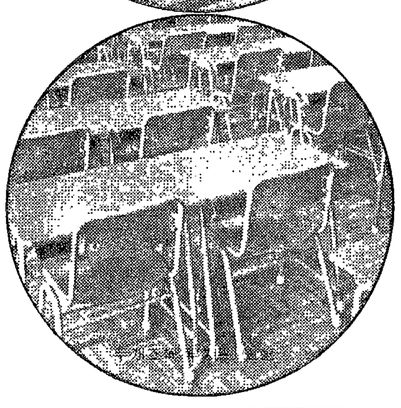
人 事 말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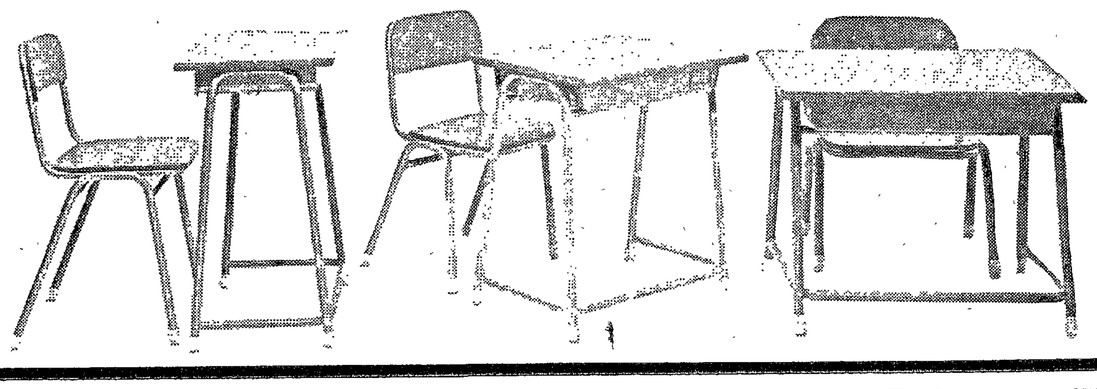
今般 弊社에서는 韓國의 敎育發展에 寄與하고져 日本의 學校用 책상과 걸상 專門메이커인 愛知株式會社와 技術제휴하여 鐵鋼材와 合板 그리고 合成樹脂로 學校 學生用 책상 걸상을 高度化된 技術로서 生産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愛用하여 주시옵기바라면서 于先 紙面으로 人事드리며 귀하의 敎育事業에 繁榮있으시기 祈願합니다

◆技術提携◆
本製品은 日本에서 最初로 學校用 책상、걸상의 ＪＩＳ許可 工場으로 認定받아 30餘年 成長하여 日本 全域의 國民學校에서 大學校까지 獨占納品하고있는 愛知株式會社와의 技術提携로 이루어지있읍니다

◇本製品의 特徵◇
①美麗하여 情緖敎育에 이바지한다
②學校·學院·강당·도서관은 물론 협소한都市및농촌 가정의 자녀교육에 필수적인 제품이다
③堅固하면서도 가볍다 ④安樂의자와 같이 편안하다
⑤도장및용접이 영구적이다
⑥파이프끝에낀 캡의 수명은 영구적이며 特殊장치로 벗겨지는 일이없다. 설사 벗겨진다해도 파이프끝부분이 접어 말아져있어 바닥에 흠이생기지않는다.
⑦파이프의 용접부분은절개삽입 용접이어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없다.
⑧모자·책가방걸이및 이름꽂이가 붙어있다.
⑨組立式이므로 수선이간편하다.
⑩完全自動化 生産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⑪책·걸상은 1~10號·特號의 規格別로 生産한다.







<韓進·愛知>
SC—3400

◆各道代理店募集◆
期間：1973年12月31日限
要領：서울本社에 問議할것

日本愛知(아이지)와 技術提携
韓進鐵鋼工業株式會社
本社：서울 中區山林洞136—2 Tel ㉗4444~6
工場：仁川市北區曉星洞655~13 Tel ⑤4444~6

그 어제와 오늘

의 開放時代가지

나라의 運命은 국내적인 諸狀況과 국제적인 諸要因의 總合에 의해서 결정된다。오늘날과 같이 국제적인 要因이 큰 比重을 차지하는 時代에 있어서나 또는 强大國의 利害가 대립되는 弱小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國家의 運命은 국내적인 것보다도 國際作用에 의해서 크게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開國政策(李朝末)을 택하기 전부터 國際作用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따라서 우리는 우리 民族과 國家의 安全과 運命을 생각하려 할 때는 무엇보다도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는 國家들이 어떤 態度를 취할 것인가에 깊은 關心을 갖지않을 수 없다。지난날의 歷史에서 볼때 2個國, 또는 그 以上의 國家들이 韓國에 대한 影響力行使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동안 韓民族의 運命이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李朝以後만 보더라도 韓半島를 둘러싼 强大國들의 勢力均衡이 이룩됐을 때는 韓國이 유지됐고 어느 一方의 힘이 强大하여져서 均衡이 깨졌을 때는 屬國 또는 植民地로 떨어졌던 것이다。19世紀中葉까지는 淸國의 李朝에 대한 影響力이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獨立은 名目으로만 유지됐을 뿐 實質에 있어서는 淸의 間接支配下에 있었다。淸의 이같은 權力의 一方通行은 19世紀中葉부터는 雙方通行으로 변하였다。新興國 日本의 進出로 韓半島에서의 國際作用은 競爭作用이 되었다。그리고 러시아의 勃興도 日本의 진출에 못지않은 영향을 韓半島에 미치게 되었다。이러한 均衡과 그에 따르는 獨立은 淸日戰爭(1894-5)의 결과로 日本이 勝利를 거둠에 따라 무너지기 시작하였다。淸의 敗北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독점적인 對韓影響力은 確鑿되지 못하였다。그러나 露日戰爭(1904-5)에서의 日本의 勝利는 韓半島에 대한 日本의 獨占支配를 가능하게 하였다。韓半島에는 이미 均衡勢力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韓國은 日本의 植民地下에 들어간 것이다。日本으로 부터의 一方的인 權力通行은 解放과 더불어 끊어졌다。韓半島에서의 權力作用은 世界性을 잃기 시작했으나 美·蘇라는 超强大國이 완여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힘의 作用은 地域的으로는 부分現象을 보였던 것이다。美·蘇의 雙線作用으로 변하고 이 經濟大國化함에 따라 四線作用으로 展開하여 오면서부터 美國과 中共이 접촉하고 日本과 韓半島에서 갖는 이해관계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찾고 4강의 상호관계속에서 그들의 장차의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70년대의 中期를 맞는 現時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社說 3面에 계속

一、美國의 利害와 態度

美國、蘇聯、中共、日本등 우리와 관련되는 四强의 利害는 독같을수가 없고 각기 重視하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된다。그들은 그들이 한반도에서 얻고 있는바 또 얻으려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을 전개해왔고 또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나라가 한반도에서 갖는 利害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것에 비추어 그들이 취할 행동노선을 분석, 또한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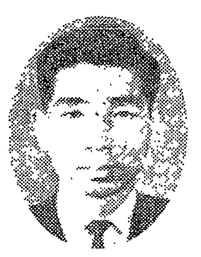
美國은 남한내에 정치적영향력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과 南韓을 線으로하여 대륙권산세력의 더이상의 南進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중요시하게 된다。

美國이 韓國과 外交關係를 갖기 시작한 1880年代에는 다른 西洋國家인 로서아와는 달리 한반도문제에 깊이 개입되지 않았다。미국의 한반도와의 불가분한 관계는 제2차대전중로부터 더불어 맺어졌다。解放, 美軍政의 實施, 建國, 六·二五戰爭, 再建過程에서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깊숙이 관련을 가져왔던 것이다。그러나 동안에 北韓으로부터는 「第一의 對外公敵」이 되리만큼 南韓의 存立을위한 支援을 하여 왔다。

그와 같은 지원과정에서 미국의 政治的영향력이 南韓內에 크게 뿌리박게 되었다。어떤 政治勢力도 美國을 무시하고 國家方針을 구상할수는 없게 된것이다。정치적 영향력에 뒤따라 문화적·경제적 이익이 날한내에서 파생되었다。특히 美國式의 思考와 생활등의 문화적인 영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같은 이익을 지키기위해서 美國이 취할수 있는 選擇肢는 두개의 方向이 있을수 있다。하나는 적극적인 그리고 어느 똠에서는 對共强硬的인 방향이다。이 길을 택하면 美軍의 계속적인 주둔과 원조의 계속적인 提供을 하게 될것이다。그리고 러시아의 勢力擴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日本의 안전을 위해서 韓半島의 分斷이 日本의 안전을 위협하는 狀況이라고도 생각될것이다。그에 따라 日本은 韓半島에서의 여러변동도 두려워 하는 것이다。韓半島의현 상이 維持되기 위한 노력을 日本은하게 된다는 점이다。그노력은 주로 직·간접적인 것으로는 北韓의 국제사회에의 진출을 많을 것이다。바로 이 사실을 우리 민족의 평화에 도움을줄지 모르나 國家安保에 목 있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동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日本은 統一指向性과 가장 거리가 있는 행동을 추구할 것이다。

셋째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것 가운데서 무시할 수 없는것은 韓半島의 分斷이 日本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한 狀況이라고도 생각될것이다。그에 따라 日本은 韓半島에서의 현변동이 있어 않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軍으로 하는 것을제공하게 되며 現狀維持를 하기 위해서는 緊張緩和 또는 共存的인 政策에 동의하게 된다。이 점에서 보면 한반도에서의 현정에 소련이 制動을 하는 要素가 된다고도 볼 수있다。그러나 共存策을 北韓의 反蘇化防止보다는 重要視되지 않는다。그럼으로 적어도 蘇聯의 對北支援이 防衛的인것에 그치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소련과 어떤 妥結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 것이다。



天 丙 閔
<敎授·安保硏究所長>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韓半島의 分斷이 日本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한 狀況이라고도 생각될것이다。그에 따라 日本은 韓半島에서의 현변동도 두려워 하는 것이다。韓半島의현상이 維持되기 위한 노력을 日本은하게 된다는 점이다。그노력은 주로 직·간접적인 것으로는 北韓의 국제사회에의 진출을많을 것이다。바로 이 사실을 우리 민족의 평화에 도움을줄지 모르나 國家安保에 목 있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동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日本은 統一指向性과 가장 거리가 있는 행동을 추구할 것이다。

셋째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것 가운데서 무시할 수 없는것은

東大新聞

오늘 開化期에서

經濟的側面에서본 韓國과 四大强國

金二經
〈經營管理研究所·研究員〉

(1)

알궂게 산덕大王을 두고, 순수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으니, 정복한 임장에선 그 王인지는 몰라도, 당한 처지에선 그는 악날자요 침략자요 대학살자라고하겠다。

더구나 그는 수없는 전쟁을 통해,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을 제 말밑에굴복시킨것뿐만 아니라, 다른각도에서 그는 「東西」 문화교류에 현현한 공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여기서 강대국과 그속편 약소국가間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및군사적 침략이나 점령은 순수 그것에만 그치는것이아니라, 문화적침략을 동반한다는 논리가성립된다。나는 「韓國新文學大系(全三卷)」를 보노라 그 序文에서한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강대국의 침략즉 도전(挑戰)에대한, 주체적 응전(主體的應戰)즉 투쟁의 역사라고 말한일이 있다。우리역사를 보면 上古시대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 내내 韓半島를 볼러싼 北方의 강대국과 그리고 南方의倭敵들의 끊임없는 침략을받았고, 韓半島를 거의 쑥밭으로 만들어놓은 「임진왜란」은 싸움자체가 처참한것뿐만아니라。그로서 문화권의 판도를 바꿔놓기도했다는데서, 중요한 한판제패를 남겼다。

이렇게 한국은한국을 볼러싼 강대국의 간섭(干涉)및침략에 따라, 문화적으로크게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내내 「事大사상」을 일소하고, 주체성을 살리라든가, 「식민지적 史觀」을 일소하고, 민족사관을 확립하라든가 「의타적문화의 식민지적 침식」에서부터고유문화를 지키자든가 하는 일련의 구호들은 언제나 우리들이 「政治文化」 가한반도를 에워싸고 角逐을 벌였던 강대국의 「政治文化」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5천년역사가 흡러온 오늘날, 韓半島는 北으로부터 蘇·중공, 南으로부터 美·日, 이를바 4强시대라고 부르는 그 4강의 영향권안에서 정국적으로든 완전한 통일을 목표로, 자주적이고도 자생적(自生的)인 역사를 전개시켜야하는, 자각(自覺)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어 있고, 또 우리들의 역사가 힘의 논리로 전개되고, 개편되고, 그로서 역사가 현실화되는 세계의 역사와 어차피 흐름을 같이해야 하는데서 더욱 實存의고뇌를 치려야했다。설령 좋든싫든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이—스스로의 利權에 따라, 그들의 합의로서, 그것이 비밀로 이뤄졌던, 혁식적인 절차를 밟고 이루유졌던에관계없이— 강요하는바에따라,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않을수도 없는 완전한 통일을 목표로, 자주적이고도 자생적(自生的)인 역사를 전개시켜야하는, 자각이 없고, 그 의적인 간섭이나, 압력에 맞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옹전(應戰)을 펼칠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속에 우리들의 고민이 놓여있다。말하자면 外的모순과 內的모순을 한꺼번에 안고,

强大國文化의 挑戰과 應戰

李哲範
〈文學評論家·同門〉

美國은 또한 「펄트·햄」의 풍이 수작으로 묵인하고 있었다。

송직히 말해서 3·1운동이 일어났을때만해도 美國은 한국의 독립투쟁을 지원한 일은 없다고, 그저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어떤 의미에서 日帝가 中國이나 만주에 범람하는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믿었던 것이다。

(2)

이와같이 韓半島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합수관계에서 문화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세력권에 따라, 똑같이 영향을 받고있다。日帝가 서구지식을 앉세운 근대화를 내세우고, 한반도를 점령하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봉건적경제체제를 米穀생산에 집중케하므로써 원시자본을 독점케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이와같은 일본집합은 農民收奪을 위한 토지조사사업을 출발점으로 하였고 이어 화폐제도의 개혁을 위시하여 금융및 조세제도의 근대화및 교통, 통신기관의 근대화등을 퇴행던 것이라고 하겠다。그로인하여 우리나라가 그들의 商品市場및 原料獲得市場으로 만들어 졌던 것이라함은 물을것도 없거니와, 그 마들기 위하여 日本은 韓國「쌀에 대한 집착하기 어렵지 않다。

이나라를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 만 집합은 역압정책을 썼을 뿐 아니라 식로품과 공업원료를 얻고자 農米增殖計劃、棉花北洋政策등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日本식민정책이 극도에 달했던 1930년대에는 1929년에 폭발된 세계공황의 여파를 받으면서 전쟁경제의 형합기지로서의 경제체제를 갖추는데 철안이 되었다고 평하여도 무방한것 같다。一例를 들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하에 선大王인지는 몰라도, 당한 처지에선 그는 악날자요 침략자요 대학살자라고하겠다。

이러한 식민지하의 統制經濟時代에있어서의 우리나라경제가 일본경제에 착취당하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앞서 말한것처럼 일본경제의 외곽地帶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西歐社會에 있었던 自生的 근대화과정을 밟지못하였고 그에따라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갖게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 확립하는 것이다。경제력면에서는 60년대의 몽업화를 반영하고 그 기초위에서 70년대의 몽업화를 건고히 하는동시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하의 우리나라경제가 해방이 되자 일본경제와의 유대는 갑자기 끊기고 그위에 남북으로 분단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은 말고도 있는 일이다。이러한 여건밑에서 경제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전은 광복이후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수립후 다시한번 外資와 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려던 참에 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6·25동란을 일으키고 간 단적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자본 마저도 거의적 灰燼되었다。

특히 美國의 원조계획과 안정및 부흥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할수있을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安定期라 할수있는 時期는 1954년부터 미국의경제원조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한 1957년부터 1959년까지 3년간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 3년간은 美國의 경제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한 시기이므로 우리나라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차 5·1%성장했던 自由黨末期까지라고 보지않을수 없을것이다。이와같은 불균형적인 경제원조는 우리나라 민족자본의 불평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의 과시적소비성향으로 흡렸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그런만큼 이나라 國防費負擔의 漸增으로 自立經濟의 기반구축이란 사실 요원하다 아니할수없었다。

종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외국원조액은 國民總生産額의 15%나 차지하였고 1973년 6월 현재의 借款累計는 41억 4천8백42만弗(美國15억 4천82만弗 日本 8억7천7백만弗) 에 이르고 그중 공공차관이 36·8%(15억3천1백80만弗) 상업차관이 52·8%(21억9천2백61만弗)로 상업차관이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막대한 외자도입으로 이룩된 경제성장과 얇은 내용은 외자도입이 우리나라의 중소시장에 기대하지 않을수 없는 절실한 것이다。

최근의 사태가 종평하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다음은 중공접근이 이루어지면 중국과 美日의 수출시장, 동남아시장등에서 한국과 중공은 수출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美·蘇·中共·日本등 4大國의 세력균형으로 결정될 아시아의 흥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강대국의 흥정대상으로 회생되지 않으면서 자주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韓國의 경우처럼 自生的으로 근대화는 물론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또한 그를 위해서는 교린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일고있는 美日의 중공접근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교, 안보, 경제면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다。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라함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보아진다。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라함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보아진다。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라함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보아진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일본경제와의 유대는 갑자기 끊기고 그위에 남북으로 분단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은 말고도 있는 일이다。이러한 여건밑에서 경제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전은 광복이후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수립후 다시한번 外資와 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려던 참에 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6·25동란을 일으키고 간 단적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자본 마저도 거의적 灰燼되었다。

특히 美國의 원조계획과 안정및 부흥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할수있을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安定期라 할수있는 時期는 1954년부터 미국의경제원조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한 1957년부터 1959년까지 3년간이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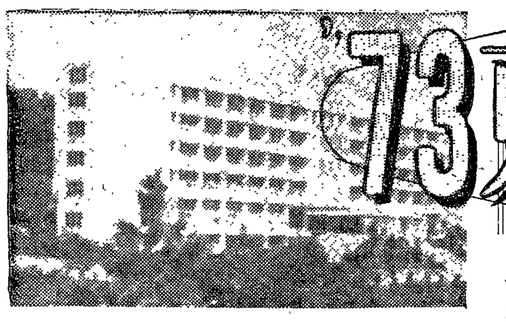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전은 광복이후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면

「빅·이슈」 73東國

○ 大學의 1 ○
○ 年은 짧기만 ○
○ 하다. 그짧은 時○
○ 間속에서도 東國 ○
○ 은 부단한 發展의 ○
○ 터를 마련하는데 게 ○
○ 을리하지 않은 반면 ○
○ 새로운 問題들을 노출시 ○
○ 키는 등 퍽 多事한 한해 ○
○ 였다. 敎育學館, 體育館의 新 ○
○ 築으로 부각된 校勢의 눈에 보 ○
○ 이는 發展과 G建物로 노출된 ○
○ 財團의 問題, 學園에 를아진 데 ○
○ 모열풍에 휩싸였던 本校 역시12 ○
○ 월이 채오기전에 早期放學을 맞 ○
○ 게 된것등 을해의東國의 발자 ○
○ 취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점 ○
○ 철되었다. 본란에 서는 ○
○ 이중에서 學生들의 주 ○
○ 목을 받았던 몇가지 ○
○ 「빅·이슈」 만을 추 ○
○ 려 이의 앞뒤 ○
○ 를 살펴본다. ○
○ <편집자註> ○

◎敎育學館竣工
◎印度와 文化交流
◎G建物은 宿題로
◎學園데모 事態



◇敎育學館竣工등 施設확장

徐燉珏總長취임이래 활발하게 진척중인 校內施設확충計劃의 첫번째 결실인 敎育學館의 준공이 눈앞에 서있다.

大學의 校勢가 그 대학의 시설로 평가될수는 없으나 교육에 필요한 제조건들의 완비는 대학의 內實을 위해 先行되어야 할것이라는점에서 이번 교육한권의 준공은 우리들의 기대를 부풀게했다.

총건평 2천3백여평에 敎授研究室, 실험실습실, 세미나실등을 갖춘 철근콘크리트 5층건물인 敎育學館은 총 1억5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대역사로 師範大와 敎養學部가 수용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느껴오던 장의실부족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8월3일에는 총건평 5백10평의 4角돔식 綜合體育館이 착工을 보게되었다. 이날 착工을 보게된 綜合體育館은 앞으로 室內運動경기인 농구부동의 연습장과 경기를 함께 가질수 있으며 대규모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선수대기실및 탈의실, 샤워실등이 부대시설로 들어설 것이다.

敎育學館과 綜合體育館의 竣工과 着工등 때를 같이해 G건물앞에는 2개의 정구코트가 마련되어 널리 使用을 하고 있다.

73年 한해는 施設확충에 注力한 한해였다고 볼수있으나 建物의 확충보다 工科大와 農林大의 실험기재등 內實을 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것이다.

◇印度와 文化 交流 合意도

지난 5월18일 印度의무성차관보 파란츠케씨의 本校방문으로 본교와 인도간의 본격적인 學術교류의 첫 章이 열리게 되었다. 美國아이오와大와 일본駒澤大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본교는 인도의 소개되지않은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갖지 되였다. 同 문화교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도의무성산하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와本校간의 敎授, 학생등의 교류등 중요한 학술자료를 교환한다는 것등이다.

이같은 計劃이 구체화되게된 것은 72年 安敬賢敎授를 비롯한 本校敎授등의 訪印등지 거론되였던것으로 앞으로 많은 學術交流가 기대된다.

◇G建物問題로 總團 들썩

지난 70年부터 公務員敎育院(G建物)을 인수하여 經商大 강의실로 使用하여오던 G建物이 學生들 사이에 그運用을 둘러싸고 많은문제를 남겨했다.

G건물은당초 1층부터 2층까지 總務院側이 사용하고 3층이상만학생들이 사용해 왔으나 同建物內에 土產品관매장을 開設하려는 움직임이 직접적인 발단이 된것이다. G建物문제로 지난 11월13일 總學生會長 李澈杓군을 비롯한 20여명의 總團간부들은 孫慶山總務院長과 면담을하고 G建物內의 土產品관매장설치취소 G建物使用權의 本校이양등 G建物에 얽힌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건의했으나 납득할만한 해답을 얻지못했다.

總學生會는 11월14일 오후 5시 孫慶山總務院長과 徐燉珏總長앞으로 각각 G건물에대한 學生들의 건의 문을 전달하고 이의 관철이 어려울때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15일에는 일부 總團간부들이 농성을 벌이기로했다.

한편 G건물문제에 관련, 同窓會(회장 崔璨九) 에서는 지난12월초 財團측에 G건물의 본교사용의 원활과 재단이 그設立理念에 부응하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올해 G건물문제로 노출된 財團과 학교당국의 고충이 해소되어 東國人의 열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이는 세해의 숙제로생각될수밖에 없다.

학교당국과 財團側은 총무원측과 계속적인 대화로 이의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임을 밝혔다.

◇데모事態로 早期放學

10월중순 73년의 가을을 어둡게했던 모 大學街에 몰아친 데모열풍은 학원사찰등 어둠계했다. 言論自由보장, 학원사찰중지, 자유민주주의체제확립, 日本經濟예속화 반대등 대학인과 직접 간접적으로 직결된 問題의 해결을외친 대학생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게 타올라, 11월말에는 서울市內 거의 全大學이 데모 사태에 휩쓸리게 되었다.

대학이 自由스러운 분위기를 보장받지 못한곳에 학문의 자유는있을수없다는 학원사찰의 中止를 부르짖는 대학생들의 요구는 大學의자유로운 발전을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요구였다.

또한 言論自由의 보장과 日本經濟에 예속되어가는 韓國經濟의 불균형을 외치는 學生들의 외침은 지난 12월초 全國에 동시에 내려진 早期放學으로 일단 저진호흡을 멈추었다.

學生들의 데모사태와 早期放學에 따라 政府는 지난 12월13일 全國總學長會議를 개최, 大學의 현안問題點과 데모學生들을 處罰할 것을 결의했다.

本校는 지난 11월27일 經商大學生이 東友塔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뒤 28일12시부터 1천5백여명이 버규모 시위를 벌여 5個項의 결의문을 채택, 교문을 나섰으나 오후4時 자진해산 29일부터 早期放學을 맞게되었다.

본교생이 지난28일 시위에앞서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을 보면 ①學園사찰을 중지하라 ②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③자유민주주의 체제확립하라 ④일본경제예속화 탈피를위해 정부는 굴욕적 한일회담 재협하라 ⑤김대중씨사건을 해명하여 납득할만한 사건의전말을 밝혀라등5개항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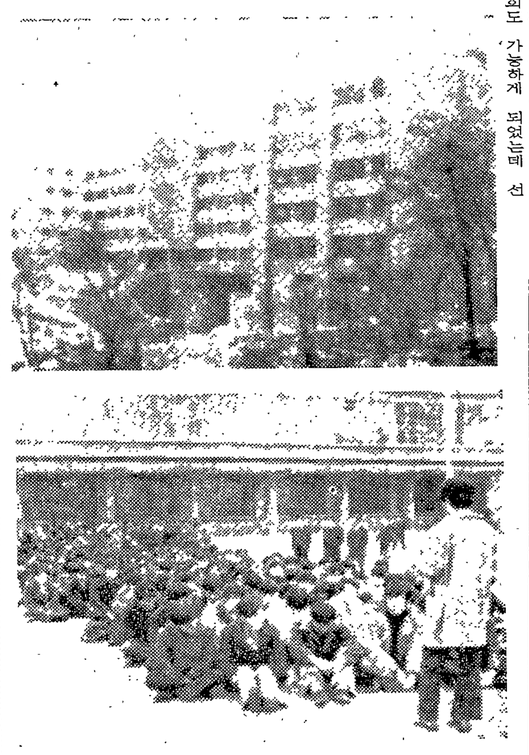
이들 결의문의 내용은 결국 시위와 결의문을 채택한 全國 각대학의 공통된결의로 생각될수도 있다.

이에대해 지난12월13일 문교부가 주최한 전국총학장회의에 참석한각 대학의 총학장들은 학생들의 정신함양을 위해 학원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번 사태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들동안의 열띤 이번會議에서 제기된 總學長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우선 學生들의 소요事態는 大學이 社會의 부조리에 대해 무관심할수가 없다는 점과 大學의 철저한 自由분위기 보장을 위해 政府는 학학을 해야 된다는 內容을 주로 들수있다.

政府는 이보다 전에 이번 데모事態로 처절한경고 구속된 學生들을 전면 구제하여 學園復歸를 절대로 하지않겠다고 確約, 솜털을 트기도 했다. 그러나 早期放學이라는 사태는 제발 재해에는 없어야 할 것이였다.

(尹太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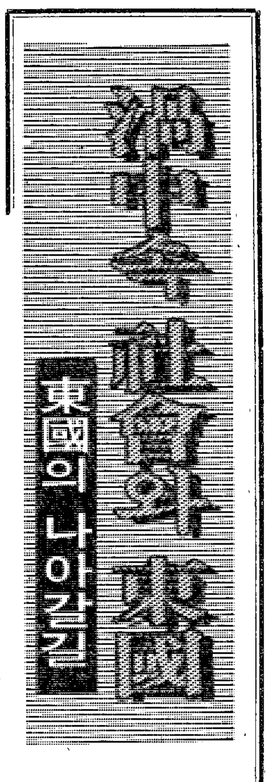


印度와 學術交流 合意

G建物 해결은 宿題로 남아

施設 확충 두드러져

學園示威, 早期放學 초래



鴻門宴 社會와 東國

東國의 나아갈길

李 浚 杓
<長會生學總>

現時點에 있어서 교내·외 실정에 관해 문제의식을 제기해 볼때, 그 以前에 大學의 사명이라는 것은 진리탐구의 정당한 고로 진리의 계승, 비판 내지는 창조가능일때만이 존재해야하며 이을러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前提로 해야겠다.

오늘날 東國人들이 多角度로 東國의 나아갈 길에 그들 스스로의方向設定을 한다고 하는것은 전제해둔 大學의 사명에대한 합리적인반사작용이라고 본다. 우리 東國大學校의 설립이념인 불교는 1천6백년의 기나긴 歷史를 지녀오면서 民族문화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근래엔 친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斯界의 비판이전에 하나의 革新運動 즉 「人間發見」을 추구하는 불교계의 「Human Academism」運動이 지난 2月부터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비근한例를들면 지금 세계각국의 공통된憲法改正의 한계란 것은 그 헌법의 체계성과 그 헌법의 원리와 性格을 변질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改變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동국대학교에도 설립이념인 불교의 「Category」안에서 반드시 파괴한改革은 必要하다고 하는것이 現代 불가는 東國人의 관단이라고본다. 現代 佛敎人들이 現實적이고도 능동적인 제기를 마련 하여야만 된다고 강력히주장하고싶다.

다음으로 校外的 요소 즉 식국 문을 論하기에 앞서 上記 大學의 使命에 결부시켜 국가와 사회와大學의 關連性에 대해 말한다음 東國人의 진로를 말하고저한다. 이에는 개방적인 사회환경과 모든 사회윤리 곧 정의감 내지는 책임감등이 전전한 사회의식으로써 전제되야 할것이다.

인간을 수적인 면에서 하나에 국한 되지만 모이면 큰 힘을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Zoon politikon」(사회적동물) 이라는 것을 통하여 보면 모든이에게 공통된 인식이다. 이들을 크게 묶어보면 다음 두가지 傾向으로나 누어 볼수 있다. 次例 <1>「본다」의 7편과 <2>「映說經」의 7편과 <3>「人間民」의 8편 <4>「山詩帖」의 9편에서 三人詩集으로 나온 「時間表없는 停車場」, 57年의 「과수원의 合唱」등을 헤아리면, 15년만의 第三詩集이 된다. 重鎭詩人으로서의 그의 詩的關心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詩壇의 多角的으로 시도하여 獨步的인 境地를 개척했었다. 電波미디어, 또는 극장무대를 통하여 발표된 詩劇 十數篇을 통하여 詩와 聽衆과의 융화를 위한 成果라고 평가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詩集은 이러한 大別을 편의상 4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부 「본다」

이부에는 이번에 고人生을 진지하게 또 방대하게 보려는 시인의 내면을 그대로 담아 놓았다. 「봄밤」에서 「봄밤」에서 「봄밤」에서

學園動態 早期放學

本校生이를示威벌여

學年末成績과 中間成績과「리포트」로

도책대 驗試 末期學 議會長處學 急緊

12月8日、2學年生의 學年末試驗이 끝남과동시에,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였던 本校는 28日부터 발발한 本校生데모事態로 인하여 학년말 시험이 채 끝나기도 전인 11月30日부터 放學

30일부터 早期放學이 强行됨에따라 그간 實施中이던 學年末考査가 중단되고 냉동한 후 만일 이와같은 熱望을 띠기시작한 學園動態는 일단 냉각기에 들어섰다。

한편 學園事態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全國總學長會議가 지난 12월13일부터2일동안 熱議된 끝에 決意文을 채택、「學生들이 學業에 專念할 수 있는 학원분위기 조성」을 內容으로 한 對政府 건의문을 발표했다。總學長會議를 통하여 어느정도 學園과 政府間의 對話가 트임으로써 學生들이 시위를 통하여 내세운 결의사항을 부분적으로 실효를 거두었다。

지난 11월28일 本校에서는 經商大生1백여명이「東友塔」앞에 集結、자유민주주의의 實現과 言論自由를 보장하라는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학년말시험을 全面거부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어 이들날인 29일 낮 12시30분쯤 본교정 1천5백여명은「학원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英語、英作과목의「윈터·스쿨」을 74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정학한 정수기일및 수강기간은 개학후 교양학부교학과에서 발표한다。

한편、미처 보지못한 시험과목을 리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시간과 담당교수성향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해당과목을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했다。

교양학부(部長=이영석박사) 에서는 지난11월달 학기말 시험이 채 끝나기도 전인 11月30日부터 放學

政外科1학년 정기설군이경제 학년말시험을 치루지못한 학생들의 試驗科目에대해 中間考査成績이나 리포트 제출로 대체시키기로 결정했다。

에 들어갔다。또期放學에따라 학교당국에서는미처 학년말시험을 치루지못한 1、2、3學年生들의 試驗科目에대해 中間考査成績이나 리포트 제출로 대체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책전환、自由民主體制의확립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만일 이와같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9일 오후5시 긴급 학처장회의를 소집、30일부터 방학에 들어가기로 결정、校門은 굳게 닫혔다。한편12월2일 학처장회의는 학년말시험을 치루지 못한과목의 성적에 대해서는 교수당에 의거、리포트나중 제출로 인책하기로 결정、해당과목을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했다。

「윈터·스쿨」延期

3月初 發表

고 그 자세한 내용을 프린트로 인쇄하여 각가정으로 배부했다。

敎鍊試驗 3月에 보충교육일정도

本校 1·2學年團(團長=裵大起대령) 에서는 지난12月初에 실시예정이였던 73學年度 第2學期군사교육시험및 보충교육을 학원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3月初에 실시하기로 결정、발표했다。

1、2、3學年生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은 74年3月第2、3주 토요일을이용하여 실시하며 출석부족자를 위한 보충교육일정은 기말시험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本學軍團에서는 74學年度 1年次 ROTC入團式을 來年 3月初에 가질 예정이다。

師範系大、11日로끝나 敎員順位 考査

文敎部가 교원평준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학년말시험을 全面거부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어 지난 11월28일 本校에서는 經商大生1백여명이「東友塔」앞에 集結、자유민주주의의 實現과 言論自由를 보장하라는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학년말시험을 全面거부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어 이들날인 29일 낮 12시30분쯤 본교정 1천5백여명은「학원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英語、英作과목의「윈터·스쿨」을 74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정학한 정수기일및 수강기간은 개학후 교양학부교학과에서 발표한다。

한편、미처 보지못한 시험과목을 리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시간과 담당교수성향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해당과목을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했다。

○…甲寅년、74년의 새해가 밝았다。學園사태와 구실을 다해왔는지 自問하면서 새해에는 보다밝고 더불어 내려진 조기방학과 각 대학 總·學長이 학원자율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학원의 正常化를 약속하며 신학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양학부 農生科에 재학중인 김정일군과、정원두 學生은 『年末하신 영어선생님께 孝道하고파 早婚하게 됐다』는데 科友들의 축복속에 신랑·신부는 시종 미소를 띠우기도。

남학생들은 『철늦거리는 신랑이 부러워서 나도발리 서둘러야할까보다』고 한때였다고。

寒波이겨 年中 無休特講

農生科生 원앙夫婦 화촉

……○……

○…放學中에도 G건물 3層에서는 經商大에고보 입학을 준비하는 東國의산 證人으로 학원내의 明暗을 그대로。

○…교양학부 農生科에 재학중인 김정일군과、정원두 學生은 『年末하신 영어선생님께 孝道하고파 早婚하게 됐다』는데 科友들의 축복속에 신랑·신부는 시종 미소를 띠우기도。

남학생들은 『철늦거리는 신랑이 부러워서 나도발리 서둘러야할까보다』고 한때였다고。

寒波이겨 年中 無休特講

農生科生 원앙夫婦 화촉

……○……

○…放學中에도 G건물 3層에서는 經商大에고보 입학을 준비하는 東國의산 證人으로 학원내의 明暗을 그대로。

東國文化祭 성황

23일、水原同門會주최로

水原동문회가 주최하는 제3회 東國문화제가 지난12월23일 水原 市民會館에서 崔載九동창회장、조정환동문회장、柳基天수원시장및수원시민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였다。

總學生會후원으로 열린이번 東國文化祭 개막식에서 崔載九동창회장은 『文學分野에 물목할만한 발전을 거둘하고 있는 東國人들이수원시민을 위해 文化祭를개최하게 된 것은 본의의를 새롭게 했다。이어조정환동문회장(동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개최사에서 『수원동문회가 이번 文化祭를 계기로 지역사회개발에 일익을 담당할수있는 先頭走者가 되자』면서 다짐했다。

이날 文化祭는 오후 2시와 7시 두번에 걸쳐 1、2、3부로 나뉘어 피아노독주、포크송이어 출연등의 1、2부가 끝난다음 3부에선 본교 연극영화과 1학년학생들이 「맹인이」(영터리의사) 란작품을 公演참석한 수원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 보다앞선 이날 오전에는 수원청년회의소에서 수원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文化祭는 오후 2시와 7시 두번에 걸쳐 1、2、3부로 나뉘어 피아노독주、포크송이어 출연등의 1、2부가 끝난다음 3부에선 본교 연극영화과 1학년학생들이 「맹인이」(영터리의사) 란작품을 公演참석한 수원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 보다앞선 이날 오전에는 수원청년회의소에서 수원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金성수君우량상

전국웅변대회서

사단법인韓國인권옹호협회가주최하여지난달남영동 대회에서 본교 김성수(건축공학과1년)군이 대학일반부 우량상을 차지했다。

釋林會定總

會長에라남은군

前任幹部表彰도

석림회 定期總會(會長=신법학·印哲4) 가 지난12月6日 오후 2時 총무원회의실에서 열려 74年度新任會長團選出、경과보고및결산의、회칙개정등에 관한 討議를 하였다。

事長、徐熾珏총무원장、朴寶眠理事長、徐熾珏총무원장、내외귀빈및 會員등 약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총무원장 광로표창장에 신법과 학생들은 동학과의 폐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經商大에 신설된 電算科로 옮겨지게 됐다。

지난 1천160명이 문교부는 지난 12월 12일 機械、化工、金屬등 重化學工業分野에 중점적인 科新設 및 增員을 실시한 이번 문교부의 조정내용에서 本校에는 經商大學에 40名정원의 전산과와 工科大學에 40名정원의 工教科가 新設되는 한편 文理大의 전산과(40명정원)가 廢科된것이다。

新設된 두 학과중 工教科는 中·高校실업과목(공업)교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된다。

이로써 本校의 入學정원은 1천1백20명에서 40명이 늘어난 1천160명이다。

文理大에 소속한 전산과 학생들은 동학과의 폐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經商大에 신설된 電算科로 옮겨지게 됐다。

釋林會定總

會長에라남은군

前任幹部表彰도

석림회 定期總會(會長=신법학·印哲4) 가 지난12月6日 오후 2時 총무원회의실에서 열려 74年度新任會長團選出、경과보고및결산의、회칙개정등에 관한 討議를 하였다。

事長、徐熾珏총무원장、朴寶眠理事長、徐熾珏총무원장、내외귀빈및 會員등 약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총무원장 광로표창장에 신법과 학생들은 동학과의 폐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經商大에 신설된 電算科로 옮겨지게 됐다。

奉仕活動활발히展開

酷寒으로 精神敎育등 치중

겨울방학을 맞아 酷寒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연구부를 비롯한 7개써클의 冬季奉仕活動이 예정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12월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엄어산)에서 수련대회를 마친 불교학생회를 선두로 시작된 73년도 冬季奉仕活動은 오는 15일까지 ELF클럽의 활동으로 모두 막을 내린다。

그리고 冬季奉仕活動의 후위대로 노릴봉사 보다는 토착민에서 정신교육및 부업장려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써클의 동계봉사활동계획

▲농촌계몽대=12월27일부터 1월5일까지 충남 공주군 우성면 학생대표 민승희)

▲유네스코학생회=12월27일부터 1월5일까지 충남 공주군 우성면 학생대표 민승희)

4H클럽 중심으로 학습보충、정서교육、공동작업등

▲ELF=1월5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에서 실시(지도교수 張保雄、학생대표 김창환)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장려 활동

▲한국문제연구회=12월18일부터 28일까지 전북 정읍군 내장면 고암리에서 실시(지도교수 南都泳、학생대표 이순성)

▲길클럽=12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정읍군 내장면 신기리에서 실시(지도교수 張保雄、학생대표 김창환)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장려 활동

▲YMCA=12월27일부터 1월5일까지 충남 공주군 우성면 학생대표 민승희)

▲유네스코학생회=12월27일부터 1월5일까지 충남 공주군 우성면 학생대표 민승희)

4H클럽 중심으로 학습보충、정서교육、공동작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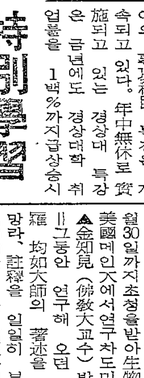
▲ELF=1월5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에서 실시(지도교수 張保雄、학생대표 김창환)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장려 활동

▲길클럽=12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정읍군 내장면 고암리에서 실시(지도교수 南都泳、학생대표 이순성)

레슬러柳在權君

조폐공사에入社

지난 72년도 제계 아마레슬링선수권大會 自由型 플라이급 銅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柳在權(經行·4)君을 지난 20일字로 조폐공사 경비원으로 入社가 확정되었다。



〈柳在權君〉

本校 行政大學院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아마레슬링선수권大會 自由型 플라이급 銅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柳在權(經行·4)君을 지난 20일字로 조폐공사 경비원으로 入社가 확정되었다。

레슬링部 계속好調

3體級 席卷、2冠王도

지난 15日부터 17日까지 龍文高等學校體育館에서 거행된 全國마추어레슬링選手權大會에 출전한 李校레슬링부는 自由型 7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제1차선발大會에 출전한 李校레슬링부는 自由型 그레꼬로만型에서 3體級 席卷、2冠王도 차지했다。

이날 文化祭는 오후 2시와 7시 두번에 걸쳐 1、2、3부로 나뉘어 피아노독주、포크송이어 출연등의 1、2부가 끝난다음 3부에선 본교 연극영화과 1학년학생들이 「맹인이」(영터리의사) 란작품을 公演참석한 수원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 보다앞선 이날 오전에는 수원청년회의소에서 수원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會長에崔世和교수

在職同門會개최

本校在職同門會에서는 지난 12월20일 오후3시 敎授室에서 年末을 맞아 同門간의 親睦을 도모하기위해 總會및 忘年會를 開催했다。

이번 總會에서는 金起東前회장(국문학과교수)의 뒤를이어 신임회장에 崔世和교수(사범대國敎科교수)가 선출되었다。

한편 理事진에는 교수직에서 물러난 李東林(국문과)·張漢基(體敎科) 鄭世鎬(數敎科) 교수등이 선출되고 사무직에는 尹成燮(과학관사무주임) 張淳億(도서관서무주임) 金鎬鎭(出版部長) 씨가 선출되었다。

▲自元俊교수(師大體敎科主任)=지난해 11월25일 개최된 大韓체育會 秋季定期評議會의 體育로 유도 8단 昇段이 결정되었다。

▲李泰永교수(中東歐研究所長)=독일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았다。

▲金知見(敎敎大교수)=그동안 연구해 오던 新羅 均如大師의 著述을 총망라、註釋을 달아 『均如全集』을 出版하게 되었다。

▲李鍾益(佛大)교수=오는 2月 1日부터 末日까지 日本大正大學 초청으로 한일불교 비교연구차 渡日예정

▲이해동(農林大助敎授)박사=지난15일부터 76년 8월30일까지 초청을받아生物學 美國레인저에서연구차도미。

▲金知見(敎敎大교수)=오는 1월20일부터 2月2日까지 國際아카데미 재단이 主催하는 「韓日貿易의 改善方案」 세미나에서 講演次 渡日。

▲李鍾益(佛大)교수=오는 2月 1日부터 末日까지 日本大正大學 초청으로 한일불교 비교연구차 渡日예정

▲이해동(農林大助敎授)박사=지난15일부터 76년 8월30일까지 초청을받아生物學 美國레인저에서연구차도미。

▲金知見(敎敎大교수)=오는 1월20일부터 2月2日까지 國際아카데미 재단이 主催하는 「韓日貿易의 改善方案」 세미나에서 講演次 渡日。

▲張廣鎬(法政大學長=지난15일부터 오는1월20일까지 美國法曹界를 시찰。

▲吳德永(經商大)박사=오는 1월20일부터 2月2日까지 國際아카데미 재단이 主催하는 「韓日貿易의 改善方案」 세미나에서 講演次 渡日。

▲張廣鎬(法政大學長=지난15일부터 오는1월20일까지 美國法曹界를 시찰。

▲吳德永(經商大)박사=오는 1월20일부터 2月2日까지 國際아카데미 재단이 主催하는 「韓日貿易의 改善方案」 세미나에서 講演次 渡日。

敎授動靜

同窓會 송년

同窓會 送年會

柳根昌 동문등 祝賀도

同窓會(會長=崔城九·農生科)에서는 73年度 送年會를 겸한 「東國을빛낸 同門祝賀宴會」를 지난 21일 오후6시 그릴에서 가졌다。

徐燉珏總長、朴寶眼理事長을 비롯 學內人士와 2백여 同門이 참석、성황을 이룬 이번 送年會에서는 柳根昌(원호처장) 金在潤(思北副知事) 劉基天(水原市長) 李雨榮(서울시 청국장) 등 4名의 榮轉同門과 금년에博士學位를 취득한 金起東 金鎭遠 金喜鎔 金寶均 黃石洲同門、行政考試合格者 李載春同門、軍法務官試驗 合格者 朴成燁同門等이많은 동문들로부터 祝賀를 받았다。

法科1年 特別學習

司法考試및 行政考試등準

요 國家考試에 대비한 法政大學 法學科 1學年生15名에 대한 特別學習지도가 지난 12월2일부터 5일간 金景 鎭指導下에서 실시되였다。

근래에 들어 슬럼프에서 허덕이고 있는 法大生들의 資質을 향상시킴으로써 司法考試와 그에 準하는 國家考試의 합격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法學科 學生들의 學習意慾을 북돋우기 위한 方策으로 실시된 同學의 회합들은 현재 양분·양계동의 축산파동의 분석) 25만원、金在功(금수해법에 의한 불법적 법조、위장고정식패로) 25만원

▲고大=권진홍(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 11만원。

▲경상대=張源宗(Monetarism연구) 11만6천5백원、전창환(신진국의 미란세정책이 한국수출에의 영향) 11만7천원、韓珏(신사고 결과의 활용실태연구) 11만6천5백원

▲동림대=권영대(낙엽송材의 Fiber-Board제조특성) 25만원、원병휘(미단일계주의 생태에 관한 연구) 25만원

▲고大=권진홍(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 11만원。

▲경상대=張源宗(Monetarism연구) 11만6천5백원、전창환(신진국의 미란세정책이 한국수출에의 영향) 11만7천원、韓珏(신사고 결과의 활용실태연구) 11만6천5백원

▲동림대=권영대(낙엽송材의 Fiber-Board제조특성) 25만원、원병휘(미단일계주의 생태에 관한 연구) 25만원

▲고大=권진홍(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 11만원。

▲경상대=張源宗(Monetarism연구) 11만6천5백원、전창환(신진국의 미란세정책이 한국수출에의 영향) 11만7천원、韓珏(신사고 결과의 활용실태연구) 11만6천5백원

▲동림대=권영대(낙엽송材의 Fiber-Board제조특성) 25만원、원병휘(미단일계주의 생태에 관한 연구) 25만원

經商 特講계속

專攻科目도

10여도울 오르내리

經商大의 영어와 專攻科目 특강은 속도로 있다。年中無休로 실시되고 있는 經商대 특강은 금년에도 경상대학 취업률을 1백%까지급상승시키기 위함이 그목적이였다。

이번 특별학습지도는 法學科 1학년생들에게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보다 조직적이고 合理的인 考試에대한 인포메이션을 습득시키기 위함이 그목적이였다。

이번 특별학습지도는 法學科의 徐燉珏총장을 비롯하여 民法의 張庚鎬법경대학장、憲法의 韓相範학생처장、刑法의 염정철교수등 現 司法및行政考試委員들이 講義에 나섰다。

「카렌다」배부

學生課서 1部씩

新年度 本校「카렌다」가 발행되었다。

7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으로 발행된 이번「카렌다」에는 74년도 학사일정과 本校建物 그리고 學生들의 생활이 계절에따라 삽화로 인쇄되어있다。

學生課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참한 학생에 한해 지난 20일부터 배부하고있다。

經商大에 電子計算科新設

本校入學定員 40名늘어

工業敎育學科新設

經商大에 電子計算科도

本校入學定員 40名늘어

工業敎育學科新設

天幕學校에 誠金 10萬원

徐總長주선 南서울 로터리클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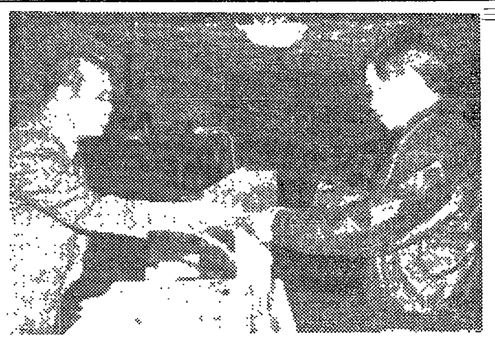
남서울로타리클럽에서는 社會奉仕의 하나로 城南市에 불우아동선도학교를 세우고 奉仕하고있는 본교 鄭根植君(경영·4)에게 천막교실 건립비용으로 10萬원을 寄贈하여 感激의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徐總長과 金起東교수 등 교직원 10여명과 鄭君의 부모가 참석하였다。

徐總長은 이 자리에서 『이번 寄贈은 남서울로타리클럽 회원들이 평소 社會奉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鄭君은 지난 1966년 本校 經營學科에 입학、재학중 4년간 줄곧 학업과 병행하여 天幕學校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敎授 神精仕奉 君鄭 격려



敎授硏究費지급

硏究意慾 고취

行政大學院忘年會

申院長博士祝賀도

행정대학원학생회(會長=박상현) 에서는 지난 12월7일 퇴계로 대림정에서 망년회를 경한 申宗淳원장의 박사학위획득축하회를 가졌다。

이날 축하파티에는 서돈각총장을 위시한 졸업동문및 재학생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農生科草地會結成

農生科 4학년 韓肇奎군 등 5명은 지난 11월17일 「草地會」를 결성했다。

지난 9월 문교부로부터 「농촌정착작학금」을 지급받은바 있는 農生科生中 졸업후에 4년간 술학한 전공지식을 농촌에 정착을 희망한 학생들로구성된 同會의 회원들은 현재 양분·양계동의 축산파동의 분석) 25만원、金在功(금수해법에 의한 불법적 법조、위장고정식패로) 25만원

▲고大=권진홍(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 11만원。

▲경상대=張源宗(Monetarism연구) 11만6천5백원、전창환(신진국의 미란세정책이 한국수출에의 영향) 11만7천원、韓珏(신사고 결과의 활용실태연구) 11만6천5백원

▲동림대=권영대(낙엽송材의 Fiber-Board제조특성) 25만원、원병휘(미단일계주의 생태에 관한 연구) 25만원

▲고大=권진홍(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 11만원。

▲경상대=張源宗(Monetarism연구) 11만6천5백원、전창환(신진국의 미란세정책이 한국수출에의 영향) 11만7천원、韓珏(신사고 결과의 활용실태연구) 11만6천5백원

▲동림대=권영대(낙엽송材의 Fiber-Board제조특성) 25만원、원병휘(미단일계주의 생태에 관한 연구) 25만원

美術科 踏査

美術學科(主任·金榮華교수) 에서는 冬期 佛蹟답사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金泉·「直指寺」에서 가졌다。

佛敎美術品과 불교유적을 조사하고 美術科生中 특히 불교미술을 전공하는 學生들에게 실제로 佛蹟을 접할수있게 하기위한 이번 冬期답사는 미술과생 20여명이 참가했다。

本校 미술과에서는 매학기 발학을 이용하여 佛蹟조사를 실시하여 답사를 해왔다。

蔡煥國5천m 1位

1次氷上公認大會

제1차 빙상경기연맹대회에서 본교의 蔡煥國선수(體敎·3)가 5천m 1위、3천m 3위로 입상했다。

태능 아이스링크에서열린 이번 스피드스케이팅우수선수기록회는 남녀각대표 21명의 우수 선수가 참가、경합을 벌였는데 이날 蔡선수의 기록은 5천m에 8분40초9로 우승、3천m에 4분54초6으로 3위 입상했다。

同會는 冬期放學을이용 5일간 金山溜高(金北) 普文高校(大田) 能仁高校(大邱) 弘報활동을 벌였는데 本校 徐敎授와 佛敎學科의 「現代學問에 있어서 佛敎學의 位置」、「現代社會의 必要性(申光榮인類4)」 「인식방향및 진로문제、종합적인 카운슬러(梁鎬俊·인철4)」의 「東大안내(金周英·인철3)」이였다。

이번 순회 법회가 끝난뒤、일행은 순회 중립학교학생들과의 격의 없는 간담회도 나누였는데 이자리에서는불교학과 학생들의 장래 진로문제 등 동대학교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TV스튜디오 開設

지난 12월24일 착공된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소극장에만 의존해 오던 公演연습、실습및연습을 위해 우리나라 TV방송국과 거의 같은 시설로 설계되었다。

정민철君이 제출 아동선도학교는 裵俊洙(體敎·3)君은 누어 실시하며 음악、미술、체육을 제외한 전과목의 중학교과과정 교육을 工場에서 일하는 청소년 80여명에게 실시하고있다。

그간 천막학교 교실2개를 어렵운 근경에서도 自費로 제운 鄭君은 平生事業으로 이를 계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宗立學校 순회法會

佛敎學生會서 5日間

佛敎大學 學生會(會長 許哲) 주최 佛敎學術發表會 및 佛敎學生會 순회법회가 지난 12월9일부터 13일까지 宗立學校를 巡廻 佛敎學術發表會 및 순회법회를 가졌다。

同會는 冬期放學을이용 5일간 金山溜高(金北) 普文高校(大田) 能仁高校(大邱) 弘報활동을 벌였는데 本校 徐敎授와 佛敎學科의 「現代學問에 있어서 佛敎學의 位置」、「現代社會의 必要性(申光榮인類4)」 「인식방향및 진로문제、종합적인 카운슬러(梁鎬俊·인철4)」의 「東大안내(金周英·인철3)」이였다。

이번 순회 법회가 끝난뒤、일행은 순회 중립학교학생들과의 격의 없는 간담회도 나누였는데 이자리에서는불교학과 학생들의 장래 진로문제 등 동대학교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TV스튜디오 開設

지난 12월24일 착공된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소극장에만 의존해 오던 公演연습、실습및연습을 위해 우리나라 TV방송국과 거의 같은 시설로 설계되었다。

정민철君이 제출 아동선도학교는 裵俊洙(體敎·3)君은 누어 실시하며 음악、미술、체육을 제외한 전과목의 중학교과과정 교육을 工場에서 일하는 청소년 80여명에게 실시하고있다。

그간 천막학교 교실2개를 어렵운 근경에서도 自費로 제운 鄭君은 平生事業으로 이를 계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東國大學校

論文集(13輯發刊案內)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3집을 발간함에 있어서 교수제위의 옥고를 싣고자하오니 다음과 같이 논문집 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1974년 1월15일까지
2. 제출요령:각자양식에 의하여 논문제목, 논문요약, 참고문헌등을 200자원고지 30매이내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기 타:구체적인것은 대학원 교무과에 문의 하여주시기 바람。 1974년 1월 일

大學院長

苦悩는 創造한다.
創造는 歡喜다.
歡喜에로의 苦悩를 사는
젊은 햄리트들에게
이 한 卷의 冊을 권장한다.

鄭 璡 敎授의 哲學的 에세이

苦惱의 哲學

Ⅰ. 삶의 터전
Ⅱ. 죽음의 자리
Ⅲ. 思想의 언저리
Ⅳ. 韓國의 테두리
Ⅴ. 實存的 思想家
Ⅵ. 삶의 苦惱와 歡喜
Ⅶ. 人間, 그대는 무엇인가

菊版 490面의 全1冊 값 1,800원

發行處:訓 福 文 化 社
展示 및 販賣處:中 央 圖 書 展 示 館
서울特別市鍾路區新門路 1街(敎育會館 1層) 전화:(72) 1653~1842

—동문의 집—
63년 경제과 졸업
최 복 길
대한극장앞 ☎ ㉖0677

점은 지성인의 요람
보리수 다방
고려병원
김희준안과
지정처
서울고교 건너편
⑫0524
고려안경원

1974年度
大學院(碩士·博士課程)學生 募集要綱

1. 募集學科 課程 考査科目

學科	課程	考査科目
敎育學科	碩士·博士	專攻科目(科別)
國文學科	〃	語學
英文學科	〃	外國語(英·獨·佛中擇一)
史學科	〃	國文
哲學科	碩士	專攻科目(各學科別)
佛敎學科	〃	〃
國語學科	〃	〃
英語學科	〃	〃
國史學科	〃	〃
數物化學科	〃	〃
法學科	碩士·博士	〃
政治外交學科	〃	〃
行政學科	碩士	〃
商經學科	〃	〃
農林學科	碩士·博士	〃
經濟學科	〃	〃
應用生物學科	〃	〃
食品工學科	碩士	〃
印度哲學科	〃	〃
演劇映畵學科	〃	〃
統計學科	〃	〃
警察行政學科	〃	〃

※第2外國語 選擇에 있어서 中國語, 漢文은 佛敎學科, 國文學科, 史學科, 梵語는 印度哲學科 志願者에限하여 擇할수있음。

2. 應募資格
學士, 碩士學位所持者및 取得豫定者 (但 同系學位가 아니라도 無妨함)
3. 願書交付
1974年1月8日부터 1月18日까지 (願書代 800원)
4. 願書授受
1974年1月14日부터 1月21日까지 (受驗料 4,000원)
5. 考査日字
1974年2月1日 (金) 午前10時本大學院
6. 其他
가. 提出書類는 願書裏面을參考할것。
나. 成績이 優秀한 者는 奬學金을 支給함
다. 其他 詳細한 것은 本大學院에 問議할것。

1973年 12月 日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特別市中區筆洞 3街26
電話㉑8131~39 ㉑8141~45

論文集發刊 原稿募集

本 東國大學校 附設 經營管理研究所 (所長=吳德永교수)에서는 오는 3月中으로 經營論叢(가칭)創刊號를 發刊하기 위해 교수및 斯界人士의 玉稿를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모집합니다. 적극 參與를 바랍니다。

—아 래—

一. 論文內容: 經濟, 經營 및 産業技術全般에 대한 論文, 研究노트, 書評, 기타.
二. 提出마감: 1974年1月31日까지
三. 提出場所: 本 經營관리 研究所
四. 원고매수: 200字원고지 1백枚 內外
五. 執筆資格: 大學교수, 강사 및 이와 同等의 자격을 가진 者

※기타 자세한것은 本연구실 (☎ ㉑8131~9 (交) 352) 로 문의하시오.

1973년12월

東國大學校 附設
經營管理研究所

근교부정관 최우람씨 소장품
73년 애호가가 선정한 인기 금상획득 종로2가 태극당옆 ☎74-6161
세고비아기타

기 타 강습
피아노, 만도린, 드럼 정서와 생활音樂은?
자니音樂원 72-3304
고대생 특별우대 종로2가 <태극당>옆

육군 육군참모총장위촉 1143호 공군참모총장위촉 7호 공군
을지로입구 ↔ 남영동
행정지원병 모집 노블다실
각군 위촉에 의거 아래와 같이 모집함. (배월정원마감) 파출소옆
▲자격:★ 육군17~26세 (보충역포함) ★ 공군17~21세미만 미혼 남자
▲특전:각군교육후 원하는시기에 행정병으로 현지단독입대
후반기교육면제·복무연한 일반병과 동일·교련제도있음
☎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 부속 종합글씨연구원 ⑮3771 ㉘7774
◎종로1가24. 광화문우체국건너, 무과수제과2층 ⑬6717

時間속의 숫자

申基宣 〈同門·詩人〉

時間이 흐를 때마다
슬픔에 잠기는 것은
永遠한 사랑의 言約이
흠뻑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時間이 흐를 때마다
조용히 엮겨져 하는 것은
죽을 듯이 가슴 저미는
사랑의 불길 때문입니다。

時間이 흐를 때마다
두손 모아 祈禱하는 것은
人間의 아름다운 사랑을
사랑으로 잉히기 위한 때문입니다。

時間이 흐를 때마다
밤 하늘을 向해 울부짖는 것은
靈魂속에 지어 있는
그대와 나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때문입니다。

本社 記者들이 들춰본 73年 뉴우스의 뒤안길

캠퍼스 造景計劃, 새해로 社會奉仕 활동 特記할만
「도약東國」의 氣運充滿

때=1973년12월31일
곳=本社회의실
參席記者 尹太京 (編輯部長)
朴男淳 (取材部長)
羅宗星 기자
高玉錫 〃
安正勳 〃
金厚錫 〃 (記錄)
宋賢詰 기자
咸朱勇 〃
李相奉 〃
宋文彬 〃
韓京南 〃
金玉順 〃

福祉施設 병행돼야

Y=교육학관의 완공및 실내체육관기공등「캠퍼스」내의 대학건물들이 확정일로에 있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의 건축과 아울러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균형미있는 造景과 학생들이 마음놓고 自由로이 산책할수 있는 시설입니다。最大의「서비스」를 제공해 줄수있는 國書資料및 복지시설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기존 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것 같습니다만…。

P=지난번 K大에서는 某교수의 장의가 不實하다고 해서 말이 있었던데요…。

S=물론 학생들도 自重해야겠지만, 일부 敎授들의 講義風土쇄신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K=L교수같은 분은 熱講中에 졸도까지할 정도로 熱誠的인가 하면 어떤 교수는 公休日에도 補講에임하는 등 實力있는 某교수의 講義姿勢를 비교해 볼때 너무 不誠實하다는 말들이 많던데요。

休講은 大學의 멋인가

C=언젠가 하루8시간「풀」講義가 첫교시부터 통채로 휴강됨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休講은 교수에게책임이 있지않을까요? 敎授, 學生양측이 서로에 대한 해석같은게 적기때문일테죠。

P=휴강은 한편으로 大學의 여유있는 시간활용의 기회로볼수는 있지만 아니겠는가 합니다。

敎授와 學生 대화에 권위의식 배제돼야

Y=例年과 마찬가지로 祝典및각종 學術活動이 떠들썩하게 전개되었는데, 역시 단순에 그친것 같던데 군요?

M=「적마나」나 장연회등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學生들이 접하여 問題點을 파악하기에는 벅찼던것 같습니다。

답해으로 말해서 겉치레만 흘륭할뿐, 학생입장에서는 人氣없는 행사였어요。

S=敎授와 학생들이 떠들썩 통해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적었던 탓입니다。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權威意識을 배제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그 나름의 傳統이 다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敎授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할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P=10월, 一部 學長및 硏究所長들의 移動과 함께 본교에는 造景硏究所, 宗學硏究所, 中·東歐문제硏究所등이 설치되어 各연구소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게 된것도 跳躍동국의 바람직한 一面이라 생각됩니다。

Y=造景硏究所의 설치는 韓國造景연구를 비롯하여 都市化社會에있어서의 造景이 목적입니다。그동안「캠퍼스」東大建設을 위한 점점적인 造景「마스터 플랜」을 설계, 學校當局에「브리핑」까지 했지요。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상, 기술상의 問題때문에 發表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처럼의 기획이 빛을보지 못하고 새해의 문제로미루게 된것은 초부터 재원조달문제등에 기인하지 않았나 봅니다。

K=요즈음의 연구경향은 제분화 종합화되고 있고 대학의 기능적 연구소활동에대한 기대도 증대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연구소활동도 문제가 아니였을까요?

O=본교 연구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연구활동 있는 인력자원과 자료는 그런대로 갖추고있지만 시설, 특히 연구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한 제반 요인때문에 본교내의 대부분연구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수개인 전용의연구실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구비는 반드시 교내에서 조달되기보다 연구 프로젝트의 유치로 해소될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들어 부진한것 같더군요。

H=학생들의 연구실활용및 연구활동도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것같아요。말씀대로, 행정학, 경제학연구실의 경우 學術活動이 떠들썩하게 전개되었다는데, 역시 단순에 그친것 같던데 군요?

M=「적마나」나 장연회등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學生들이 접하여 問題點을 파악하기에는 벅찼던것 같습니다。

답해으로 말해서 겉치레만 흘륭할뿐, 학생입장에서는 人氣없는 행사였어요。

S=敎授와 학생들이 떠들썩 통해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적었던 탓입니다。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權威意識을 배제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그 나름의 傳統이 다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敎授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할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P=슬國 總·學長會議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S=갑작스런 발학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P=슬國 總·學長會議도 의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 결정을 학교에 비해 너무 臨機應變的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駒澤大와 교류활발

K=駒澤大學과 자매결연을 뒤, 지난해에서 水野博士가 交換교수로 본교에 와서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2명의 본교생이 學費면제의 혜택을 받고 駒澤大에 유학갔지요。美國「시라큐스」대학 연구교수로 도미한 사실과 함께, 校勢擴張에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社會奉仕活動두드러져

P=73년에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 특히 확기를 더욱더욱 정민직군이 천막학교를 세운것이 그대표적인 예입니다。또한 이를뒷받침할 4년전부터 학교의 적극적인 뒷받침의 덕분이라고 믿어집니다만…。

S=본교 취업률이 某신문에 대학으로 보도되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지요。

就業好調에 士氣상승

H=본교 취업률이 급상승을 이룩했던것은 4년전부터 적극적인 취업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만…。

S=본교 취업률이 某신문에 대학으로 보도되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지요。

早期放學충격커

Y=11月29日 비슷한 상황이였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祝典및각종 學術活動이 떠들썩하게 전개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M=「적마나」나 장연회등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學生들이 접하여 問題點을 파악하기에는 벅찼던것 같습니다。

답해으로 말해서 겉치레만 흘륭할뿐, 학생입장에서는 人氣없는 행사였어요。

S=敎授와 학생들이 떠들썩 통해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적었던 탓입니다。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權威意識을 배제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그 나름의 傳統이 다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敎授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할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P=슬國 總·學長會議도 의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 결정을 학교에 비해 너무 臨機應變的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出入處의 不親切은 不快

J=新聞社體制上 주어지는 限界性으로 인해 適時打를 치지 못했을 때는 우울한 感이 들때군요。

M=入社때는 사무실이 매력없이 넓어서 서먹서먹한 데다가「미시」팡아라,「제라」社出신과 동의 고충을 겪은것이 새롭습니다。

Y=夏季「세미나」參加에 관해 長短간 수고와 秋季세미나」때의「월드컵」韓·豪戰중계를 보기위한 時間맞추기작전도 기억에 남습니다。

P=기자재육성대회의 개최결정에 대한 초대형필에 대한 찬성여부 등의 고충을 나타내기 어렵다。

S=學內 各기관을 돌다보면 親切한 곳과 不親切한 곳이 구별되지만 대체로 다 친절하다。

N=친절했던 곳은 總長室, 농림대, 전자계산소의 순이였고, 불친절했던곳은…차마말하기가 부끄러운데요。

O=학생들에게 존대말을 쓰는것이 어떨까요?

Y=총무과에서는 바쁜 사무중에도 각종자료제공에 친절하였군요。

지금까지 여러 기자들을 수고하셨습니다。내년에는 보다나은 大學을 論調하는 기수로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진할 시다。

大學의 早期放學

순수한「아카데미즘」에 젖어있기에는 너무도 민감한 곳이다。大學生이 社會문제에 적극성을 띄고 참여한 적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G건 P교수) 에서 제기된 「학원자율화」 문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대학생들의 굳어진 표정을, 풀어줄 수있는 길은 當局이 종래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것뿐이다。물론 학생들의 사회참여도 중요하지만 學生의 學業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學生들은 社會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책임감으로 격렬해지고 모순투성이인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이것은 비판적인 태도를 부정하는 형편이니 옥수불만의 표현이 더욱 확대될수 밖에 없었던 것같다。

▲政府當局은 일단 總學長會議에서 「全面금지와 학원자율화」를 논의한 2원을 비롯하여 6개항의 대부분 연구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수개인 전용의연구실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구비는 반드시 교내에서 조달되기보다 연구 프로젝트의 유치로 해소될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들어 부진한것 같더군요。

H=학생들의 연구실활용및 연구활동도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것같아요。말씀대로, 행정학, 경제학연구실의 경우 學術活動이 떠들썩하게 전개되었다는데, 역시 단순에 그친것 같던데 군요?

M=「적마나」나 장연회등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學生들이 접하여 問題點을 파악하기에는 벅찼던것 같습니다。

답해으로 말해서 겉치레만 흘륭할뿐, 학생입장에서는 人氣없는 행사였어요。

S=敎授와 학생들이 떠들썩 통해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적었던 탓입니다。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權威意識을 배제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그 나름의 傳統이 다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敎授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할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P=슬國 總·學長會議도 의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 결정을 학교에 비해 너무 臨機應變的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大悟覺醒해야

O=每年「스포츠시즌」마다나 되면 大學연구실의 분위기는 양호하다 할수 있지만 많은 연구실들이 「써클룸」의 형식을 띠어가고 있음니다。

學內 각종 행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회고하고 반성해 볼때인것같습니다。

J=대체로 대학은 그 학구적인 성격으로하여 보수적일수밖에 없을 것이나만, 특히 본교는 전학 이념인 물교적 이미지와함께 보수성이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학교당국이나 교수, 학생간의 상호관계도 원활한 대화의 場을 찾지못하고 벨도는듯 한 분위기였습니다。

S=同感입니다。그것은 時代的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굳어진 탈피는 시급한것 같습니다。

P=지난해 10월, 一部 學長및硏究所長들의 移動과 함께 본교에는 造景硏究所, 宗學硏究所, 中·東歐문제硏究所등이 설치되어 各연구소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게 된것도 跳躍동국의 바람직한 一面이라 생각됩니다。

Y=造景硏究所의 설치는 韓國造景연구를 비롯하여 都市化社會에있어서의 造景이 목적입니다。그동안「캠퍼스」東大建設을 위한 점점적인 造景「마스터 플랜」을 설계, 學校當局에「브리핑」까지 했지요。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상, 기술상의 問題때문에 發表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처럼의 기획이 빛을보지 못하고 새해의 문제로미루게 된것은 초부터 재원조달문제등에 기인하지 않았나 봅니다。

K=요즈음의 연구경향은 제분화 종합화되고 있고 대학의 기능적 연구소활동에대한 기대도 증대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연구소활동도 문제가 아니였을까요?

O=본교 연구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연구활동 있는 인력자원과 자료는 그런대로 갖추고있지만 시설, 특히 연구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한 제반 요인때문에 본교내의 대부분연구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수개인 전용의연구실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구비는 반드시 교내에서 조달되기보다 연구 프로젝트의 유치로 해소될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들어 부진한것 같더군요。

H=학생들의 연구실활용및 연구활동도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것같아요。말씀대로, 행정학, 경제학연구실의 경우 學術活動이 떠들썩하게 전개되었다는데, 역시 단순에 그친것 같던데 군요?

M=「적마나」나 장연회등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學生들이 접하여 問題點을 파악하기에는 벅찼던것 같습니다。

답해으로 말해서 겉치레만 흘륭할뿐, 학생입장에서는 人氣없는 행사였어요。

S=敎授와 학생들이 떠들썩 통해 문제점을 찾는 노력이 적었던 탓입니다。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權威意識을 배제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그 나름의 傳統이 다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敎授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할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P=슬國 總·學長會議도 의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 결정을 학교에 비해 너무 臨機應變的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駒澤大와 교류활발

K=駒澤大學과 자매결연을 뒤, 지난해에서 水野博士가 交換교수로 본교에 와서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2명의 본교생이 學費면제의 혜택을 받고 駒澤大에 유학갔지요。美國「시라큐스」대학 연구교수로 도미한 사실과 함께, 校勢擴張에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社會奉仕活動두드러져

P=73년에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 특히 확기를 더욱더욱 정민직군이 천막학교를 세운것이 그대표적인 예입니다。또한 이를뒷받침할 4년전부터 학교의 적극적인 뒷받침의 덕분이라고 믿어집니다만…。

S=본교 취업률이 某신문에 대학으로 보도되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지요。

就業好調에 士氣상승

H=본교 취업률이 급상승을 이룩했던것은 4년전부터 적극적인 취업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만…。

S=본교 취업률이 某신문에 대학으로 보도되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지요。

早期放學충격커

Y=11月29日 비슷한 상황이였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祝典및각종 學術活動이 떠들썩하게 전개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